

바

성폭력
이슈리포트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2016 하반기

10

1

- 5 [기획특집] 한국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리고 과제
6 ■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특별 좌담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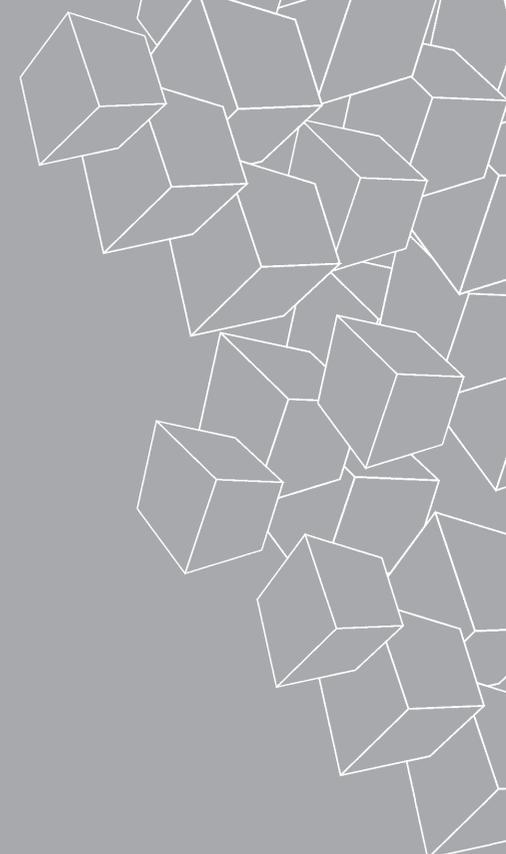
- 29 [상담일지 분석] '길거리괴롭힘' 상담통계 분석
30 1 길거리괴롭힘이란?
31 2 선행연구 통계로 본 길거리괴롭힘의 '일상성'
34 3 상담통계로 본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51 4 나가며

3

- 53 [쟁점과 입장]
54 ■ 혐오라는 가랑비, 내 젖은 옷을 말리는 방법에 대하여
67 ■ '여성혐오범죄'라는 명명이 드러내는 '여성안심' 대책의 빈 공간
83 ■ '치장'과 '멜로', 그 경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묻다

4

- 97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목록] 2015년 ~ 2016년 상반기
98 ■ 2015 상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100 ■ 2015 하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102 ■ 2016 상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1

[기획특집]

한국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리고 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특별 좌담회

한국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의 역사, 그리고 과제

기획특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5주년 특별 좌담회



2016년 8월 11일 오후 4시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이안젤라홀

- 사회자 : 김보화 _ 본 상담소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참석자 : 김홍미리 _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가나다순) 배복주 _ 장애여성공감 대표
 배은경 _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이미경 _ 본 상담소 소장
 장임다혜 _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란 _ 본 상담소 사무국장
 추지현 _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김보화 올해 2016년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5주년 특별호로 구성되는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에서는 성폭력, 섹슈얼리티, 여성학 관련 학자와 운동가들을 모시고,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의 흐름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부설연구소 울림의 기획으로 진행되는 만큼 반성폭력 이론과 연구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들도 듣고 싶다. 질문의 범위가 좀 넓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보화 지난 25년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인상깊었던 지점이나 아쉬웠던 지점은?

● 배은경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인 것 같다. 먼저 법 제·개정 운동, 사건 지원이나 판례바꾸기 운동이다. 여성 단체에 성폭력 상담소라는 이름을 붙인 기관은 많은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은 할 수 있어도 판례 바꾸기 운동처럼 전체 한국에서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단체는 여전히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상담소가 계속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두 번째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이하 말하기대회)나 달빛시위, 길거리괴롭힘 반대 등의 문화 운동이다. 문화 운동의 경우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시초를 했고 문을 열어줬고 끌고 나간 것은 훌륭했지만, 이제는 유일한 단체는 아니고, 자발적인 운동이 많이 생겼으니 다른 분야에 더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세 번째가 자기방어훈련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가해자 교육 같은 교육활동이다. 자기방어훈련 같은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훌륭한데 지금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한다. 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는 직접 교육하기보다 교육 패러다임의 잘못된 부분에 목소리를 내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웠던 지

점은 별로 없지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방식이 안타까웠다. 어떤 사안마다 의견을 내는 걸로 재현되는데 여성운동단체로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 정체성이 미디어에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웠다. 이것이 상담소의 한계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간의 활동에서 미디어가 여성 단체를 소비하는 방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점은 있는 것 같다.

● **추지현** 내가 연구소의 연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상담소의 정체성에 대해서이다.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할 캐릭터는 무엇일까?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봐야하고, 또 전담변호사 연결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미디어 대응까지 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개별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전문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다른 운동단체들처럼 주기적으로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연간보고서나 감시의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 전반적인 정책파이팅도 있지만, 감시와 통제가 먼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사실 여기 한정된 인력으로 긴박한 사건 지원 하나하나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갖고 가야하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라면 좀 큰 맥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상담소의 활동에 대해 감사한 것이 많다. 판례뒤집기 운동 등에서 피해자중심주의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 연구 때문에 국회 회의록을 다 보고 있는데, 상담소의 역할은 굉장했다. 또 길거리괴롭힘을 네이밍(naming) 한 것처럼, 새로운 언어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체성에 비추어봐서 꼭 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낙선·낙천운동까지 할 것은 아니더라도 잘못된 미디어리스트를 매년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기적

으로 핵심과제를 선정을 하고 지속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 **배복주** 2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많은 상담소가 있다. 근데 다 다르다. 그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소재들을 많이 던져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성폭력 운동에서 이슈가 너무 없는 것이 고민이다. 합의된 이슈가 별로 없고, 깊이 토론하는 이슈도 부족해서 각 상담소들이 제각각 전달체계 안에 머무르는 정도라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그런 상담소들을 연대하고 끌어가야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어떤 이슈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뿐만 아니라 우리 상담소도 마찬가지로 봉착한 과제이다. 지금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산하 12개 상담소들의 면면을 보면, 60~70% 정도는 해바라기센터 등 현재 전달체계에서 밀려나서 위기개입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해자교육, 수강명령 교육 등을 많이 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법적으로나 수사에 지원하는



●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

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러한 전달체계 자체의 직접 서비스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별 상담소들에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언어를 만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그 상담소들이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5주년을 기념해서 좋은 의제를 개발한다면, 아마 더 강한 연대의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미경** 돌아보면, 1999년 경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단체명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이름이 우리 운동의 우산이 되지 못한다. 이름에 ‘상담’이 너무 강조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문화 운동의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 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갖는 역사성이 있어서 포기를 못했다. 그러다가 15주년 때 이제 우리가 전달체계에 있지 말고 각 상담소에서 2차 피해를 주는 부분이 혹시 있나, 정부는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걸 운동단체로서 모니터링 하자, 그런 식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직접지원체계인 ‘하담’이라고 하는 중간 쉼터 운영도 정말 아프게 잘라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담전화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상담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 외침들이 결국에 운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놓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1990년대 24시간 상담했던 것을 2000년대 와서 12시간으로 줄이고 이후 12시간을 다시 8시간으로 줄여 왔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30주년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미래전망을 가져야하는가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 중요한 말씀들이다.

● **김흥미리** 비교해보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부가 없으니까 가장 조직이 가볍고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전성협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말씀하신 우산이나 ‘언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실은 꼭 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피해자 전형’과 싸우는 부분도 상담 전화나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슈에 집중할거냐, 이것도 상담전화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제도화 이후의 국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제도화로 인해 더 이상하게 피해자의 전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계속 우리는 백만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처벌 강화해야지” 이렇듯 계박에 응답이 안 오는 상황에서 그 중간 항을 얼마만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가 가장 고민이다. 두 번째는 이슈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애빙자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언어를 부여해야하는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라서 그 언어들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고민이다. 의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의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단 언어로 만들어야 뭉쳐질 텐데 아직 밀가루라서 누군가는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게 이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지금 그 역사를 봐서도 달빛시위도 그렇고, 말하기대회도 그렇고,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매우 유효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배치하고, “나를 욕해라, 나는 할 것 이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최란**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상담소의 2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지는 하다. 상담소가 그동안 해온 일이 굉장히 성과가 크고 역사성이 있

고 어떤 문제제기를 처음으로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체계상으로는 굉장히 가볍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한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을 준다. 어떤 행동을 하기도, 어떤 언어를 쓰기도, 어떤 담론을 제기하기도, 어떤 이슈를 선정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워지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체계 문제도 아니고 역사성의 문제라고만 할 수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다.

● **장임다혜** 그럼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착목했던 피해자 전형을 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특히 말하기대회는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말하기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피해자는 정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고, 언제나 감추어져야 되고, 숨겨져야 되고, 이런 종류의 피해자로 인식되던 때였다. 초기 말하기대회에서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한다, 피해자가 목소리가 있고 피해자가 자기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나간 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담론들을 이끌어어나가려고 했던 굉장히 주요한 지점인 것 같다. 요즘에 자기방어훈련, 진상되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이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운동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 최근 20대들이 의식화되면서 가장 제기되는 이슈는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했던 중요한 역할은 성폭력이라는 용어들을 눈앞에 등장시킨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냥 “성폭행”, 아니면 이전에는 진짜 “검탈”, “육보이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면 성폭력이라고, “성”이라는 표현을 바로 이렇게 눈앞에 갖다 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이건 성폭력이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한다. 그러나 반면에 내부적 충돌도 있다. 성폭력임을 인정받아야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

기에는 피해자의 주장이 기존 논리에서 먹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성폭력상담소랑 연을 맺으면서 많이 인상깊었던 것은 연대를 중시하는 것이었다. 운동하는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많은 자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연대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지점은 소진되는 것. 활동가들이 소진되고 사실은 연대하다보면 연대 자체가 또 다른 단체가 된다. 활동가들의 활동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다.

● **이미경** 근데 또 연대 자체가 정말 힘을 주고 어떤 희망이 된다(웃음)



● (좌측부터)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배은경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부연구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 **김보화** 한국사회 반성폭력운동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성의 이미지를 두렵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 **김홍미리**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성폭력 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섹슈얼리티 전반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것 같다. 사회에서 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적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사회에서 성폭력의 의미를 각자 다르게 소비하지 않나? 특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문제제기도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는 죽일 놈’이라는 전형적인 공식이 반성폭력 담론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제기가 시작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메갈리안 등장 이후에도 계속 선악의 구도로 이해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 **배복주** 그게 쉽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 좌담회 때도 그 주제가 나왔다. 그때는 반성폭력 운동에서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사회에 던져지고 대중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폭력은 도대체 무엇이고, 지금 현재 가장 피해자를 만나면서 괴로운 게 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최근에는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사용할 때 성폭력은 굉장히 보수화된 언어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애화된 것들에 대한 반대적인 언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여튼 던져진 언어, ‘성폭력’, ‘2차 가해’, ‘성적자기결정권’ 등, 그것들은 반성폭력 운동가들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낸 언어지만 그 언어가 대중에게 전달됐을 때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그게 법이나 수사, 재판이라는 과정 안에서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을 다루는 게 다르고, 시민들과 우리가 다루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취약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력의 언어는 더 규제의 언어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법과 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욱 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취약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더라.

● **배은경** 나는 반성폭력 담론이 여성들에게 섹슈얼리티를 두렵게 만들었다거나 또는 규제한다거나 특히 취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규제를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다. 김홍미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죽일 놈’이라는 담론은 여성주의적인 반성폭력담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가부장제 하에서 가해자는 ‘남의 여자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가장 ‘죽일 놈’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서의 ‘가해자 죽일 놈’, 그리고 엄벌주의, “고추를 잘라라”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에 대한 전형



●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배은경 교수

적인 이미지,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어찌고 하던 모든 것이 가부장제의 가장 오래된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는데 반성폭력 담론이 계속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성폭력 담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엇보다 모두에게 “너희들의 몸이 섹슈얼한 몸이야”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 가장 보수적인 인간들도 “여성들이 섹슈얼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것. 그런 장점들을 오히려 더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취약한 몸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배복주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장애여성들의 경우에 더욱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개별 사건을 지원할 때, 법리를 구성할 때, 그런 고민이 들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섹슈얼리티를 말하면서 섹슈얼리티를 규제하지 않는 담론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폭력 담론이 한국에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방식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장임다혜** 좀 이어서 말하고 싶은데, 왜 섹슈얼리티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너무나 이해는 할 수 있다. 사실은 각각의 개별 사건들을 대응하다 보면 결국 언론화할 때 이 사건에 최대한 이입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러려면 사실은 사회의 기존 담론에 편승해야 하고, 대중들의 인식과 법의 언어에 인정되는 말들을 만들어 내다보니 이제 동시에 또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담론도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게 특히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이 모두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다.

● **이미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갈등 부분을 말하자면, 1988년 성추행범의 혀를 절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상해죄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의 논리는 목숨보다 귀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혀를 잘랐다고 주장하는 것이었

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사실 그 논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등을 느꼈던 것은 가해자 엄벌주의에 대해서, 특히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에 대해서 우리는 성폭력 엄벌주의가 가해자를 병리화하고 격리시키면 된다는 식이어서 성폭력이 가능한 구조를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대한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왜냐면 피해자가 옆에 계시니까. 사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인권의 가치와 상반되는 상황들이 힘들었다. 또한 최근 체감한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정말 이것을 성폭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과연 이것을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까지 온 것 같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이나 차별 등의 사안을 담을 언어나 제도가 없다보니 성희롱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경우는 성희롱 법제화 10년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 **배복주** 과거에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들을 연빙(연애빙자간음)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 **추지현** 그런데 사실 혼빙간(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처벌이나 간통,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고 동시에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 기관의 인정은 확 늘어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너희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어, 그건 너희의 자유야”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보호해야 할 여성들을 선별하는 작업의 연속이었지 않나. 나는 우리가 했던 운동의 역사라기보다는 반성폭력이라는 주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와 보호의 경계를 둘러싼 각축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여성들이 피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젠더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도구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담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주된 요구를 보면, “변호사 사무실 어디 가야돼요?”, “합의금 얼

마여야 돼요?”, “치료는 공짜예요?”, “치료는 어디가야해요?” 이런 실용적인 것들이 많다. 이 혼란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들은 확 줄어드는 게 보인다. 그리고 이것도 연구자가 연구로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변에 주로 20대 여성들을 만나서 강의하는 지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데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한 채 뒤로 와서 “나는 피해자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상의 섹슈얼리티 실천이 전략적으로 변했나?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피해자로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도 일단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발화를 하고, 발화하긴 쉽지 않지만, 적어도 임파워먼트를 가지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세이프(save) 해놓고 피해자 지원이나 상담, 법적 처벌 같은 담론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의 사태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 **김보화**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최근에도 이에 대한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홍미리** 지금은 성폭력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에 대한 고민이 너무 필요하다. 최근에 즐겨봤던 드라마 디어마이프렌드에서 “모르고 지은 죄가 천만 개고 알고 지은 죄가 백가지다”, 이런 말을 했던 친구처럼,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국민 전체인데, 그 사람들에게 성폭력의 의미에 대해 묻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를 사유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해자가 너무한 것 같지만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란 도대체 뭘까, 이 사회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제도화와는 좀 다른 문제다.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가해자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왔



●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지”,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발견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너는 검정색이지”, “너는 틀렸지”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폭력에 대해서 말할 때, “신고해야지” 이 말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 **장임다혜** 사실 나도 가담자다. 피해자중심주의나 대학내 반성폭력 자치 규약이나 회칙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실수는 공동체 해결방식을 굉장히 사법적인 해결방식처럼 만든 부분이다. 해결에 대한 논의에서 사법에서의 해결방식과의 유사성을 계속 답습해 온 것이다. 실제로는 그게 해결이 아니지 않은가. 원래 공동체의 해결은 결국 피해자도 잘 해결해서 잘 살아남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런 일은 문제적이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서 잘하자, 이게 해결인데 사법 절차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왜냐면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착목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맞는 말인 것 같다. 거기서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나,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고민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떤 상황은 모든 젠더이슈를 성폭력으로 다 가져온다. 이게 성희롱의 문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다. 우리가 성희롱도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포섭을 했지만 사실은 성희롱이라는 개념이나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집단 내에서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그 용어에 맞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개념들로 모두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젠더문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해결이 아니고 공동체 내에서의 젠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성폭력으로만 가져갈 게 아니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슈화할 것인가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

● **최란** 나는 최근에 주변인, 목격자, 관련자들에 관심이 많다. 사실 성폭력이라는 말이 강하지 않나? 말도 내용도 세고 단어 자체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것이 갖는 낙인 효과도 굉장히 자극적이다. 누군가가 성폭력에 연루되는 순간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것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불편해한다. 피해자도 고립되고 가해자도 고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가해자 말고도 주변에 누군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나는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한 담론들이 기존에는 피해를 확장하고, 피해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임파워링(empowering)되고, 가해

자가 처벌되고, 가해자가 인정하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이 성폭력인지, 그게 왜 폭력인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비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게 일반교육의 빈 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잘 수신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면에서는 공동체 내부 해결 원칙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인데, 법 체계와 다른 공동체 해결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해결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법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서 내 정당성, 나의 정의성 회복, 나의 피해자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공동체 내의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한다.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일지가 현재 고민이다.

● **김보화** 성적자기결정권, 피해자 중심주의 등 반성폭력운동이 만들어 낸 담론 및 주요 개념들에 대한 의견과 향후 주목해야 할 연구 과제들은?

● **추지현** 이 자리 와서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성폭력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의 생산 주체는 우리, 젠더 폭력 연구나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범죄학, 심리학 등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그들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피해자 상담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경찰과 법무부는 경쟁적으로 인권친화적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직접상담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상담원들은 범죄심리를 했거나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관련 전공자들을 뽑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여성학자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 듣다가 심리학에서 통계 하나로 보여주면 그것이 인용된다. 우리 인

근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엄벌도 없는데 엄벌주의 담론의 효과가 더 센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확장도 막고 있다. 그런데 이 관련 연구들을 누가 하고 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젠터를 한다고 하면 법학에서도 “너희 법학 아냐?” 이렇게 본다. 그게 법학이든, 범죄학이든, 심리학이든,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한다. 다만 테크니컬한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그걸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다. 나는 사실 통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지만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자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쪽 연구를 하려고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건 진짜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 **배은경** 성폭력의 개념 정리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적자기결정권은 결국 자유주의적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개념을 폐기하거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테고, 결국 법학과 판례와 학계에서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젠더 권력 하에서 강자가 “내가 최고로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게 성적자기결정권인가? 내가 매춘할 권리나 간통할 권리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거기서 약자를 보호하는 젠더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하는 걸 지워버렸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는 앞으로 계속 줄타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들어오던 것이 가해자의 경험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듣고 묻는 방식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법제도



● (좌측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지현 전문연구원,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배은경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부연구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가 듣는 귀가 있느냐, 보는 눈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사건을 해결할 때, 마치 법률처럼 생각을 하니까 수사권도 없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혼돈들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비아냥에 흔들릴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의 이면에 있는 법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천박한 철학에 대해,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에 대한 이해 없음에 대해서 오히려 치고나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법관이 아니다. 우리가 법관이라면 기존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말이다. 이제 2차 가해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지점인 것 같다. 성폭력 통념들로 인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온갖 소문을 퍼트리는 등 온갖 종류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들을 2차 가해라고 해왔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개념인가 아니라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은 3차 피해의 문제이고 2차 피해의 문제이기도 한데, 2차 가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넓어지고, 가부장제 하에서 '강간범, 성폭력범, 이런 것들은 다 죽일 놈'이라는 인식과 결합이 되면서 2차 가해자들까지 다 똑같이 죽일 놈들이 되는, 그래서 2차 가해라는 지목조차 자기가 거의 성폭력범, 강간범으로 지목되는 만큼의 모욕을 느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조들이 계속 모든 장면에서 반복이 되어왔던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이 개념은 좀 조심해야하고 다른 고민을 더 연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배복주** 예전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병리화시키는 방식으로 범 죄를 구성했다면, 최근의 경향은 성폭력 법제도 안에 묶여있을 때 성폭력 피해자를 병리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처벌에 있어서 중심추가 예전에는 가해자를 '미친 놈', '정신이상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우리 지원 단체들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표현해야 수사나 재판 안에서 그게 플러스가 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

을 알고 있다. 아까 추지현 선생님이 엄벌이 없는 엄벌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다. 나는 형량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다. 실제로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무죄 아니면 형량이 아주 높은 걸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량이 높아지면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으니까 피해자가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기 피해를 잘 구성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취약성을 병리화시켜서 항거불능의 정치를 딱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의 수사·재판의 과정에서 핵심은 그 지점이기 때문에 형량이 끝도 모르게 높아서 두 가지 고민이 든다. 자기가 피해사실을 증거와 함께 진술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도 대다수인 현실에서 이 높은 형량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병리화가 대단히 심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나는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는 조력하는 상담활동가들하고 피해자의 관계성으로 많이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옹호하는 위치에서 피해자와 관계 맺기가 되어야 피해자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안 들리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좌표를 거기에 두지 않는 경우이다. 수사와 재판은 다르지만 자기 좌표를 그렇게 가지지 않으면 안 들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작동되면 이미 상담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일선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좌표를 설정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의해봐야 한다.

● **김홍미리** 가장 크게 드는 고민은 폭력이라는 담론이 너무 얇다, 알팍하다. 딱 한 줄인 것 같다. 피해자는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내가 앞에 반성폭력운동이 성을 두려운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좀 더 부연하면 반성폭력 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담론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

성적 성찰이다. 반성폭력 운동 가담자로서 정말 폭력 담론을 너무나 직선적으로 구축해온 건 아닐까, 그것은 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자기방어훈련도 하고 피해자는 다양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말하기대회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 목소리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듣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부장 지배의 체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팍하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할까, 제도화의 문제가 있다. 제도화 하에서 계속 싸워야 되지 않나. 내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성폭력 인정받으려면 일정부분 협상하고 또 일정부분은 새로운 담론을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과제는?

● **추지현** 지금까지는 활동가들 개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면 마치 “예전같이 요새 애들은 열정이 없어”라는 반응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다.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이 재원확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 윤리적으로 그 과제에 접근하지 말고, 어떤 과제나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법과학에서 하는 뇌과학의 실체를 아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자가 어떤 심리상태일 때 뇌파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내용들인데 우리에게 엄청 유리한 자료들도 많다. “왜 피해자들이 하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런 식으로 반응할까?” 이런 것도 뇌과학 연구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외부기관에서는 이 상담소라는 브랜드네임을 엄청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긴 하겠다.

● **김보화** 지금도 그런 의뢰들이 사실 들어오긴 한다. 우리가 먼저 찾는 것도 과제이긴 한데, 기관의 실태조사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객원 연구원들 모시고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고민이 된다. 외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정착 하고 싶은 연구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가는 같이 가는 고민인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시야를 다양하게 넓히는 것이 향후에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다.

● **배복주** 우리도 지금 3년째 연구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온다. 활동하는 단체에 연구소를 두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걸까, 일단 제일 첫 번째 고민은 연구주제를 잡을 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해서 올림이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별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연구들이 있지 않나, 그 연구를 올림이라는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인건지. 사실 제일 문제는 어떤 조직에서 연구소를 둔다는 것은 그 조직이 필요해서 그 단체가 어떤 의제가 필요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의 운동내용을 강화시켜달라, 내부 연구소는 이런 주문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 기능을 위해서 연구소가 있는 것이라면 완전히 세팅을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고. 반성폭력 이슈와 교차되는, 관련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관련이 없더라도 이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것인지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꼭 되어야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야지 연구소의 방향이 잡힐 것 같다.

● **장임다혜** 외부프로젝트는, 아까 추지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교육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연구는 연구자들이 하면 되는 것 같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학교 폭력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올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상담일지에 대한 굉장한 분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

다. 처음에 초기 상담은 혼인빙자간음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성폭력과 성폭력이 아닌 것, 지금 성매매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도, 과거에 이미 상담일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쟁점들이다. 지금의 상황과 연결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갈 것인가, 상담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이슈들을 만들어나가고 하면, 상담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사실 번역이나 프로젝트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연구 인력은 객원 연구원을 어떻게든 열심히 활용을 하고, 사실 비용이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같이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좀 하면 좋겠다. 어떤 이슈를 새로 찾는 것보다는 상담일지를 보시라, 상담일지를 다시 보시고 다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 **배은경** 추지현 선생님이 연구과제 따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인력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대학 연구소들도 하기 힘든 것이다. 우리 사회에 피해자의 다층적 경험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귀가 아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소의 연구과제는 들을 수 있는 귀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씩 개념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그 개념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담일지 같은데서 찾아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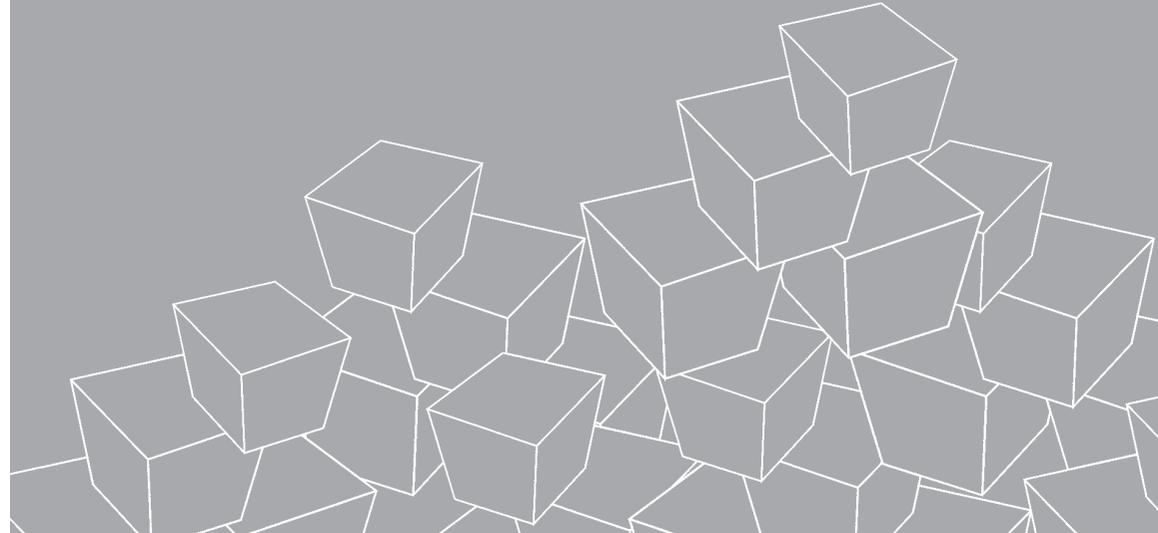
● **김보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반성폭력 운동, 여성운동과 이론부터 시작해서 연구소와 상담소의 미래 전망과 의견까지 큰 주제들인데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후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이런 정체성과 내용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끝**

2

[상담일지 분석]

‘길거리괴롭힘’ 상담통계 분석

1. 길거리괴롭힘이란?
2. 선행연구 통계로 본 길거리괴롭힘의 ‘일상성’
3. 상담통계로 본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4. 나가며



‘길거리괴롭힘’ 상담통계 분석*

조소연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연구원

1. 길거리괴롭힘이란?

길거리괴롭힘이란 ‘street harassment’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¹ ‘street harassment’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길거리괴롭힘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론화해온 단체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² 대체적으로 ‘낯선 사람’에 의한 ‘공공장소에서의 시선, 신체접촉, 폭언, 성적 언행, 따라오기 등등 일련의 ‘괴롭힘’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길거리괴롭힘을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여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행사하는 젠더에 기반한 위협과 폭력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 이 글은 2016년 10월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주최로 개최한 <길거리괴롭힘 실태분석 연구> 포럼 자료집의 본문 내용 중 상담통계 부분을 발췌, 편집한 글입니다.

1) harassment는 주로 ‘희롱’이라 번역되고 있으나 ‘희롱’은 “말이나 행동으로 싫없이 놀림”, “서로 즐기며 놀리거나 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harassment가 ‘희롱’으로 번역되면서 성폭력, 성폭행이란 용어보다 덜 심각한, 가벼운 언행이나 장난의 차원으로 성희롱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harassment를 괴롭힘으로 번역하였다.

2) 예를 들어 할러백(Hollaback)은 길거리괴롭힘을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의 일종으로, 역사적으로 취약한 집단들(LGBT)에 대한 공격행위라 정의한다. Carol Brooks Gardner(1995)라는 학자는 그녀의 저서 Passing By: Gender and Public Harassment에서 길거리괴롭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례적인 정중함이 사라졌을 때 시작 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 정의한다.

먼저 이 글은 ‘공공장소에서 보여지는 여성, 성소수자의 지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길거리괴롭힘’ 경험을 토대로 여성과 성소수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통제하는 기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일한 여성으로 묶이지 않는 여성주체의 다양성, 그리고 성소수자 정체성과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 지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겪는 성희롱, 성차별 등 일련의 기존 성폭력 개념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시선, 몸짓처럼 어떤 범주 안에 포섭시켜야할지 명명되지 못했던 사례에 대한 가시화 작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에서는 성폭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더라도 어떠한 유형으로 명명해야 할지 불분명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성폭력 ‘기타’ 또는 ‘미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길거리괴롭힘 상담통계는 이러한 ‘기타’와 ‘미상’ 사례에 네이밍을 하기 위한 첫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 성소수자가 공적장소로, 또는 다른 사적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접근하는 통로로서, ‘길거리’, 누구나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존 성폭력 상담통계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공공장소에서의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통계로 본 길거리괴롭힘의 ‘일상성’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80~85% 남짓으로 거의 일정한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드러난/드러낸’ 성폭력 피해가 가족, 직장, 학

〈표 1〉 연도별 상담통계(2014~2015)

연도	아는 사람 1,110(85.0)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87(14.2)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 원/학 원	주변 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2015 년	166 (12.7)	21 (1.6)	336 (25.7)	135 (10.3)	42 (3.2)	72 (5.5)	55 (4.2)	150 (11.5)	23 (1.8)	80 (6.1)	11 (0.8)	19 (1.5)	119 (9.0)	79 (6.0)	1,308 (100)
2014 년	107 (7.4)	94 (6.5)	300 (20.7)	130 (9.0)	55 (3.8)	118 (8.1)	60 (4.1)	120 (8.3)	31 (2.1)	109 (7.5)	19 (1.3)	31 (2.1)	132 (9.1)	144 (10.0)	1,450 (100)

* 관계 미상 상담의 경우, 내담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거나 사설기관, 법률전문인, 수사기관, 개인적 해결 등의 다양한 해결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상담에서 묻기보다는 본인 사건을 해결하거나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구체적 질문을 간단히 묻는 내용이 많았다.

교, 친밀한 관계 등 사회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성인권단체들은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과 관련된 무수한 기존 통념들을 비판해왔고, 실제 성폭력의 발생조건이 성별, 가족이나 직장 내의 위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데 주력해왔다.

계급/계층으로서 '여성' 경험의 공통성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시화하는 것은 분명 고립된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여성' 정체성에 기반 한 폭력 이슈는 더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은 반드시 친밀한 관계, 아는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해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닌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공격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자주 경험한 나머지, 또는 괴롭힘 문화가 만연한 나머지) 평범한 일상으로 느껴져서' 드러나지/드러내지 않았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개 국가, 71개 도시에서의 길거리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할러백

(Hollaback, 2014)³의 미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절반의 여성과 1/4 남성이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경험자가 발생 장소를 회피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등의 영향이 나타났다.

할러백은 한국에서도 40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113건의 사례를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sns로 제보받아 분석한 바 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80% 이하의 여성이 17세 미만의 연령에서 처음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하며, 68%의 여성이 15세 미만의 연령에서 처음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한다. 조사대상 여성의 14%가 10세 미만의 아동이었을 때 첫 괴롭힘 경험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중 40%가 괴롭힘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그 중 80%는 여성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지하철 성범죄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심현정(2013)⁵은 조사대상자 약 20%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성희롱,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 경험이 있었다면서, '화려한 옷차림', '남성이 많은 장소를 회피하기' 등 경험자의 요인이 범죄발생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심현정은 특히 경험자의 심리적 변화에 주목하는데, 지하철 성범죄 경험은 이후 추가적인 시간의 소요, 지하철 이용 시 부가적인 노력과 함께 '주위를 경계'하고, '신체를 가리'고, '경미한 접촉에도 민감'해지거나, '촬영 소리에 민감'해지는 등의 심리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일상적 성차별을 여성의 길거리 괴롭힘, 또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성범죄 피해 경험의 빈도

3) <http://www.ihollaback.org/>

4) 코리아헤럴드, "Hollaback! rallies against harassment(할러백! 괴롭힘에 대항하다)", 2013년 12월 10일자, http://khnews.kherald.com/view.php?ud=20131210000585&md=20131213004617_BL

5) 심현정(2013). "지하철 성범죄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와 심리적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각자의 사회적 위치, 장애여부, 성소수자여부, 연령 간의 차이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공통성에 주목할수록, 연령에 따른, 그리고 장애, 이주, 성소수자 여부 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김벌리 크렌쇼(1993)⁶의 지적은 2016년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유용하다.

3. 상담통계⁷로 본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1) 경험자, 행위자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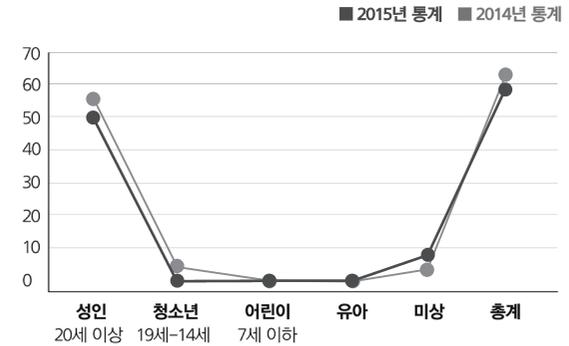
상담통계는 적극적으로 상담요청을 해온 내담자를 통해 가시화된 일부 사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성폭력 상담일지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경험을 호소하는 경우에 상담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경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단지 자신과 일면식이 없을 뿐, 확인할 수 있는 행위자 특징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경험자들은 당시의 가해자의 특징에 대해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들', '중년 남성', '어떤 할아버지가'라는 식으로 성별, 연령, 그 외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사후적으로 행위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험자가 묘사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반영하여 파악한

6) Kimberle Crenshaw(1993),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7) 상담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2015년 성폭력 피해 상담일지를 분석한 것이다. 상담일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로만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 1〉 가해자 연령



행위자의 성별,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상담통계만 놓고 보자면 가해자의 대다수가 성인 남성이다(십대 남성은 5건으로 전체 중 4%). 성인 가해자들 중 30~4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인 경우는 18%(21/116건)이었다. 일지 상으로 가해자의 연령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성인 가해자 중 64.7%(75/116건)가 여전히 '미상'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하면, 중년 남성의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경험자(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성별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14	50	5	5	
	2015	49	0	1	1	2 (가해자상담)	53
남	2014	1	2	0	0	0	3
	2015	5	0	1	0	0	6
총계		105	7	7	1	3	123

* 경험자(피해자) 미상은 주로 가해자 상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교육을 의뢰하는 경찰(대리인)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3〉 행위자(가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성별	연령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20세 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 이하)		
여	2014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남	2014	56	4	0	0	4	64
	2015	50	1	0	0	8	59
총계		116	5	0	0	12	123

* 행위자(가해자) 미상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대리인 상담이거나, 느닷없는 공격에 가해자의 신원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상 건 중에서 처음에 가해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경찰신고와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가 많았는데, 수사를 통해 신원확보된 건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확인이 가능한 건은 각 표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2) 성별에 따른 피해 장소의 현황

〈표 4〉 성별에 따른 피해 장소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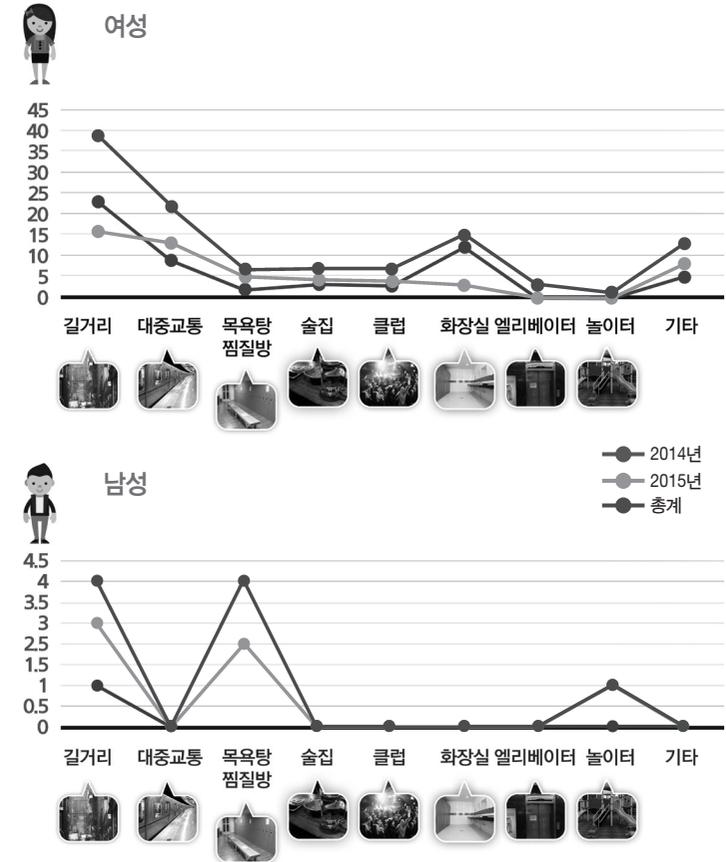
성별	장소	길거리	대중교통	찜질방/목욕탕	술집	클럽	화장실	엘리베이터	놀이터	기타
		여	2014	23	9	2	3	3	12	3
	2015	16(MTF)*	13	5	4	4	3	0	0	8
남	2014	1	0	2	0	0	0	0	0	0
	2015	3	0	2	0	0	0	0	1(아동)	0
총계		43	22	11	7	7	15	3	2	13

* 주로 여·남 구도로 성폭력 사건을 파악하는 통념에 따라 동성 간 피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성소수자의 성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상담사례도 발견되었다. 특히 MTF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남성'에 표기한 것은 단순한 표기 오류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성별이분법에 따른 젠더 표기와 같은 사회적 통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일지에 표기된 성별에 따라 빈도수를 확인하였으나, MTF를 '여성'이자 소수자의 사례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 여성은 다양한 장소, 남성은 주로 신체적인 자기방어가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

피해 장소를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로 길거리, 대중교통에 집중이 되어있기는 하나, (공중)화장실, 술집, 클럽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길거리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사우나 또는 찜질방처럼 신체가 노출되어있거나, 수면 중이어서 자기방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길거리나 대중교통 외의 장

〈그림 2〉 성별에 따른 피해장소 (단위: 건)



소를 살펴보면 노래방, 가해자의 차 안, 인터넷 댓글, 도서관, 카페, 식당, 학교, 해변, 기타 공공장소 등으로 경험 장소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늦은 밤 시간, 길거리에 혼자 있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다.⁸ 그녀들은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인 줄 알고 탔다가 차 안에서 추행, 또는 촬영 피해를 경험하였다.

8)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과 태도에 대한 향후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소수자라서, 또는 소수자가 되는 경험

주목할 만한 것은 길거리에서 남성이 겪는 피해 사례로, 성인의 경우에는 새벽시간 술취한 사람이 20대 젊은 의경에게 시비를 걸며 성기를 손으로 잡아 쥐어 추행한 사례이다. 다른 건은 피해 당시 중학생인 십대 남성이 신원미상의 불특정 성인남성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유인당하거나, 집 앞 도로에서 추행을 겪은 경우이다.

다른 신체부위가 아닌 남성의 성기에 대한 추행/폭행행위는 남성성 상실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남성들의 통제력, 지배력 등의 체계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과시일 뿐만 아니라, ‘약해보이는’ 남성들에 대한 공격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남성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길거리괴롭힘이 단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몸, 취약한 위치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분류해내고’, ‘대상화하여’ (성적으로)괴롭히는 행위로서 피해자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언행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늦은 밤 ‘여성인 줄 알고’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다 “여자가 아니네, 여자가 아니니까 신고 못하겠네”라며 폭언하는 것을 경험한 MTF 트랜스젠더 사례도 있었다. 상담일지 상으로는 1건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창구도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가 가시화되기 더욱 어려운 지점을 시사한다.

3) 행위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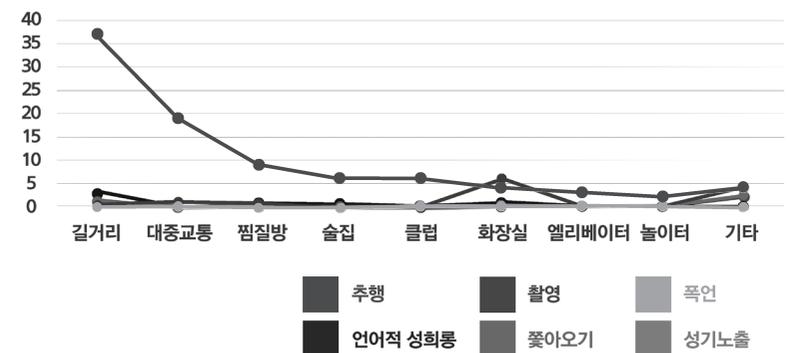
● 공공장소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유형, 추행

상담통계 상으로 가장 높게 드러나는 행위는 추행이다. 추행은 우선 다른 행위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측면이 있다.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즉시 ‘폭력’ 또는 ‘괴롭힘’ 행위로 인지할 가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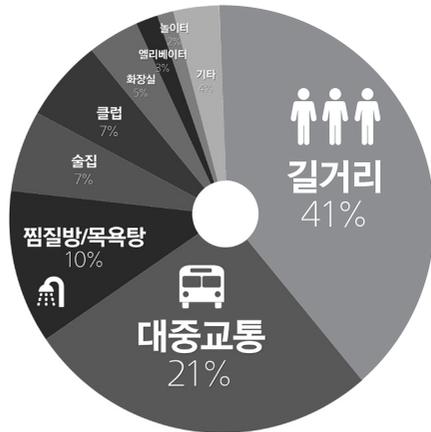
〈표 5〉 행위 유형에 따른 피해 장소 (단위: 건)

성별	장소	길거리	대중교통	찜질방/목욕탕	술집	클럽	화장실	엘리베이터	놀이터	기타	합계
추행	2014	20	8	3	2	2	4	3	1	2(가해자차/노래방1)	45
	2015	17	11	6	4	4	0	0	1	2(공공장소2)	45
성희롱	2014	2	0	0	0	0	0	0	0	1(맛글)	3
	2015	1	0	0	0	0	0	0	0	1(식당)	2
폭언	2014	0	0	0	1	0	0	0	0	0	0
	2015	0	1	0	0	0	0	0	0	0	1
촬영	2014	1	0	0	0	1	5	0	0	1(학교도서관)	8
	2015	0	1	1	0	0	1	0	0	3(가해자차/공동사위장/학교)	6
스토킹	2014	1	0	0	0	0	0	0	0	1(카페)	2
	2015	0	0	0	0	0	0	0	0	2(카페/학교부터 시내까지)	2
성기 노출	2014	0	1	1	1	0	0	0	0	0	3
	2015	1	0	0	0	0	1	0	0	0	2
훔쳐보기	2014	0	0	0	0	0	3	0	0	0	3
	2015	0	0	0	0	0	0	0	0	0	0
기타	2014	1(폭행)	0	0	1	0	0	0	0	0	0
	2015	0	0	0	0	0	1(강간미수)	0	0	0	1

〈그림 3〉 장소별 행위 유형



〈그림 4〉 추행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행은 비교적 명확하게 신고가 가능한 범죄 유형이다. 특히 강제추행은 형사법 체계 안에서도 성폭력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행 피해가 통계상 가장 높은 이유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길거리 추행을 경험하거나 목격, 타인의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신고, 상담, 지인과의 의논을 통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높게 반영되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추행은 주로 길거리, 대중교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길거리의 추행이 밤시간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인 경우는 27%(10/37건)에 불과했고, 아침 출근길에서 집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3건, 점심시간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던 길 1건이 있었고, 주로 하룻길, 퇴근길 등 귀가를 위해 이동하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시간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40%(14년 8건, 15년 7건 합산, 37건 중 15건)였다. 침대 여성, 여아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경우는 등 하교길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생활 도중인 경우(4건)가 밤늦은 시간 길거리(3건)에서 접근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내부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부터 피해자의 집 인근까지 따라와서 피해자 집 앞 목길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혼잡한 틈을 타 범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 그림으로써 마치 무고한 가해자가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는 일부 언론⁹⁾들의 태도와 달리, 상담 사례에서는 전혀 혼잡하지 않은 (개인 좌석이 있는)고속버스나 기차인 경우가 많았고(35.7%, 14건 중 5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티터라도 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거나, 앉아있는 피해자 옆에서 있다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가져다 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뒤를 이어 찜질방, 목욕탕 등에서 자고 있는 도중에 피해를 겪는 경우도 10% 정도 보고되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피해는 찜질방, 목욕탕 등의 장소인 경우가 높았다.

아동의 경우에는 주로 동네 놀이터에서 낯선 성인,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접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동, 청소년은 하룻길, 학원을 다녀오는 길 등에서 교복을 입거나 어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등, '학생' 또는 '연령' 정도를 상대방이 인지하거나 추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 피해가 높았다.

'대로변'에서 느닷없이 엉덩이를 움켜쥐고, 깜짝 놀라서 쳐다본 여성을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고', 이 여성이 "무슨 짓이냐"고 하니 그제야 도망을 간 사례처럼,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앞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서야 '합의를 요청'하거나 '사과의사를 전달'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 사례에서도 도망가는 가해자를 쫓아갔다가 오히려 힘으로 제압하려는 가해자를 피해 피해자가 도로변으

9) 헤럴드경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지하철 성추행,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발생 빈도 높아" 2016년 1월 18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8000288> 한국일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쉬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2015년 6월 25일자, <http://www.hankookilbo.com/v/0d79e7473cf342299d0efa9bcf1709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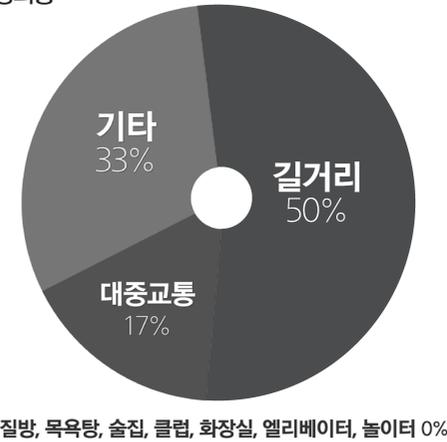
로 소리치며 도망을 갔고, 상황을 지켜본 다른 시민의 도움으로 체포하여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가해자는 경찰을 통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사례의 여성은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고 싶거나, 더 이상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한 중층적 차별 유형, 언어적 성희롱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은 주로 '나이 든' 남성이 여성에 대해 (경험자와)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등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유형이 많지만,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조끄만 년' 이라고 폭언을 하는 것처럼, 언어적 성희롱은 결국 '나이 어린' 여성을 만만하게 보는 중층적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새벽 시간에 '나이 어린' 여성이 길에 서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대상', '성적 요구를 해도 무방한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 역시 늦은 밤 길거리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뿐만 아니라, 교복과 같은 복장, 외모를 통해 연령에 대한 인식이나 추측이 이루어진 순간, '나이 어린 여성'을 만만하게 보려는 연령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하여 반드시 경험자의 성적 수치심과 같은 정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짧은 머리를 한 경험자(피해자)의 외모를 언급하면서 "여자 맞냐, 머리는 왜 짧냐, 가슴은 있냐"며 젠더표현에 간섭하는 내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경험자는 자신의 '여성답지 않은' 외모를 지적하고 비웃는 행위자에 대해 수치심과 모멸감보다는 이러한 '무례한 언행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형사처벌'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법률 중심의 이분법과 '수치스러워하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상에 대한 통념이 결합하여, 경찰은 사건 접수과정에서 행위자의 '성희롱' 호소를 '경미한 피해'라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축하기 쉽다. '모욕' 등 기존의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그림 5〉 언어적 성희롱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상황을 만류하던 주변인과 가해자 간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변질되면서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성희롱' 가해여부가 경찰에서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 맥락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성희롱 경험자들은 성폭력으로서의 '처벌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경찰이나 상담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성희롱 처벌규정이 없음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 향후 대응과 대책을 의논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상황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이 나섰다가, 또는 당사자가 직접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가해자와 물리적인 시비가 붙은 경우, '폭행' 등의 다른 죄목으로도 경찰에서 심각하게 사건을 인지하고 성폭력 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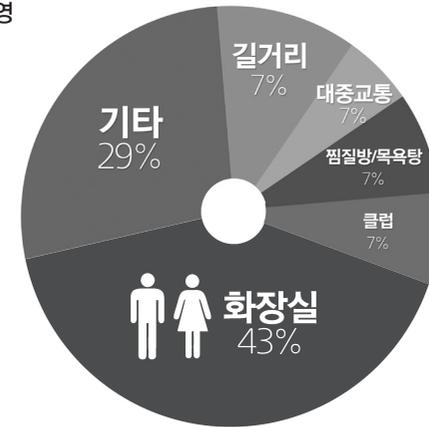
● 가장 가시화하기 어려운 유형, 카메라이용촬영

공공장소에서의 동의 없는 카메라이용촬영(이른바 몰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글에서 '길거리'라고 입력하면 치마 입은 여성들의 하반신에 초점을 맞춘 사진들이 이미지 검색을 가득 채운다.

2016년 초, 최대 음란물 유통망인 소라넷이 폐쇄되기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5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보사례를 받고, 피해 사건지원을 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지만, 실제 피해 당사자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지인이나 가족이 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된 파일을 '우연히' 확인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주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포 협박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장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더라도 가해자가 즉시 도주를 하거나, 가해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촬영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의 촬영장면이 주위 CCTV에 찍혀있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경찰의 답변으로 인해 경험자들은 불안감과 분노가 더욱 높아졌다. 증거확보는 물론 촬영물 유포 등 자신의 추가적인 피해 또한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은 주로 화장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형태가 많았지만(43%), 대중교통 안에서 잠들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여성의 다리 사이에 폰을 가져다가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남자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처럼 연령이 어린 여성에게 '학교 과제를 도와달라'며 접근하여 '자세를 취하라'고 하거나, '함께 사진찍자'며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두려운 마음에 응해준 사례처럼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촬영 피해는 반드시 '몰래 카메라 유형'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림 6〉 촬영



● 시간과 장소 구분이 따로 없는 유형, 성기노출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기노출'은 상담통계에 따르면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다. 시간별로 큰 차이가 없이, 길거리, 대중교통, 찜질방이나 공중목욕탕, 화장실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상대방에게 볼 것을 요구하거나, 자위를 하는 장면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성기노출은 반드시 '학교 주변'의 나이 어린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승객을 지켜보면서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중목욕탕 남탕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남성도 있었다.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 사람(연령과 무관하게 대상이 누구든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칸 밖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술집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모르는 여성을 향해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여기 내 문신을 봐라'며 볼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술집 역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빈번하게 괴롭힘을 경험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성기노출



4) 대응 방식

● 높은 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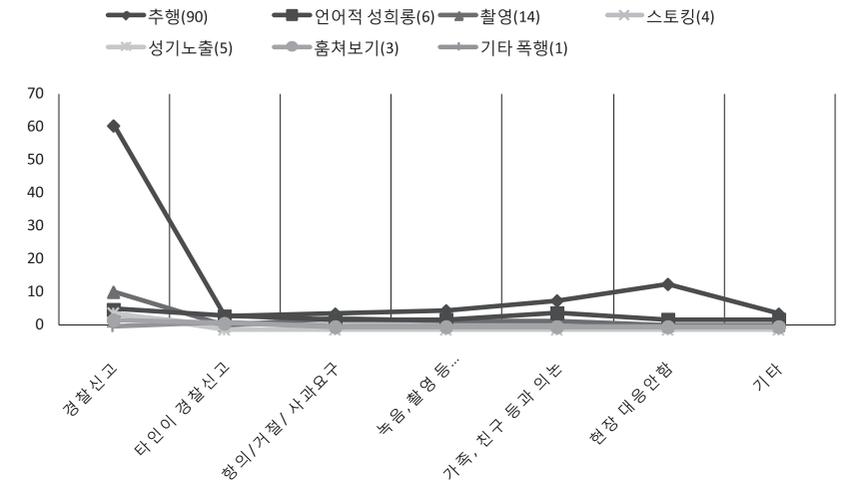
상담통계로 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신고율은 매우 높다(68%, 84/123건). 그러나 이는 상담 이후에 신고를 결심한 경우는 아니었다. 84건 모두 이미 신고를 한 뒤에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합의 요청' 등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물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에 비해 신고를 결심하기가 용이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장소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중에는 “무슨 짓이냐”며 즉각적인 항의와 사과요구를 하면서 신고를 염두에 두고 직접 녹음 등의 증거마련과 상대방의 신원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의 항의와 저항에 대해 '만지지 않았다'며 발뺌하거나, '증거 있냐', '무고나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등의 껄스름한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들의 태도로 인하여 '그냥 넘어가려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우(2건)도 있지만, 항의하는 여성에게 가해자가 오히려 폭

〈표 6〉 상담 전 대응 (단위: 건)

유형	조치	법적 조치		사적조치			현장 대응 안함	기타
		경찰 신고	타인이 경찰신고	항의/거절 /사과요구	녹음, 촬영 등 증거자료확보 (중복)	가족, 친구 등과 의논		
추행 (45/45)	2014	29	2(가해자)	1(신고제외)	4	6	5	2(1366/미상)
	2015	32(폭행2)	1(타 범죄)	3(신고중복)	1(신고중복)	2	8	2(미상2)
언어적 성희롱(3/3)	2014	2	0	0	0	1	0	0
	2015	1	1(가해자)	0	0	1(폭언)	0	0
촬영 (8/6)	2014	6	0	1	0	1	0	0
	2015	4	0	1	1	0	0	0
스토킹 (2/2)	2014	1	0	1	0	0	0	0
	2015	2	0	0	0	0	0	0
성기노출 (3/2)	2014	3(폭행1)	0	0	0	0	0	0
	2015	2	0	0	0	0	0	0
훔쳐보기 (3/0)	2014	2	1(가해자)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기타 (0/1)	2014	0	0	0	0	0	0	0
	2015	0	1(목격자)	0	0	0	0	0

〈그림 8〉 상담 전 대응 (단위: 건)



행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고를 감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의 여성은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녹음을 하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아동 청소년은 주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 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성인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고 현행범으로 입건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저항을 하다 가해자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우도 상당했다. 시비가 붙은 경우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폭행 또는 강간상황으로 보고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상황에 개입한 주변인과 가해자가 시비가 붙어 폭행 건으로 경찰에 신고접수하게 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서를 방문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신고를 한 경우에 가해자가 경찰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는 14건으로, 이 경우에 합의를 제안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더욱 분노하거나, 합의의사를 대신 전달한 경찰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합의에 응한 이유로는 '경험자가 미성년자라(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초범이고 장애가 있다고 하여', '피해 장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지방이라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으로 나타났다.

●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이유

여기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주목할 만한데,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고의 여부가 불분명해서(2건)', '놀라거나 멍해져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2건)'는 경우가 있었다. '(경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 가해(자)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여서(2건)', '남편에게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1건)'도 있었고, 목격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방관했던 경험(1건)이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지인이 사후에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신고를 권유하

기도 하였으나, 피해 당시 주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 경찰 역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신고하기 꺼려진다고 호소하였다.

주변인들이 도망가는 가해자를 목격하거나 함께 체포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직접 언급한 사례는 2014년 12건, 2015년 3건, 전체 84건 중 15건(17.9%)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당시 동행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여 신고한 경우였다.

따라서 상담통계상으로 경험자 스스로 신고를 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만으로 경험자들의 즉각적인 신고율이 통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성)폭력 상황에서 주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전적으로 혼자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피해의 정도

● 심리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할리백(2014)에 따르면, 길거리괴롭힘 이후에 경험자들은 '다니던 길을 우회하거나 변경(68.49%)', '교통수단의 변경(62.5%)', '늦은 밤 외출을 회피(61.64%)', '특정 지역을 회피(54.79%)', '복장 스타일을 바꿈(52.78%)' 등의 순으로 행동 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직장을 떠나(6.94%)거나 결근(8.22%)'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도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니던 직장 근처에서 피해발생 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의 추행 사례에서는 피해 이후 비슷한 폭력을 되풀이하여 경험할 것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였다. 특히 신고 후 가해자가 동네 주민임을 확인

한 뒤 동네에서 또다시 마주칠 것에 대해 공포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보복과 재범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였다. 특히 등하교길이나 출근길, 아침시간 집 앞에서 피해가 있었던 경우 등은 성인이 된 뒤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당시 등굣길 학교 앞 대로변에서 피해가 있었던 사례에서는 목격한 교사가 즉시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신고접수 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수년간 조울증 약을 복용해야했으며, 섭식장애를 호소하였다.

● 주변인의 무반응과 2차 피해

지하철 추행 경험 후 사건에 대해 한 상담사와 의논했는데 “너가 예뻐서 그런 거다. 잊어라. 그게 사회생활이다”고 해서 당황스럽고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는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누군가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의논을 하더라도 사건을 경미하게 바라보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주변인들의 태도에 실망, 분노감을 느낀 경우도 많았다.

카메라이용촬영(몰카) 피해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 노출된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타인의 피해를 뉴스에서 보고 난 뒤, 사건 범행장소와 유사한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미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를 확인하는 경우, 자신을 촬영한 가해자 신원확인을 즉시 하지 못하였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자신의 피해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불분명하면)신고해도 소용없다’, ‘증거가 불확실해서 수사진행이 어렵다’ 등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지적하거나, 치안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였다. 가해자의 촬영행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4. 나가며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괴롭힘은 한국사회에서 여태까지 명명되지 않은 경험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시화되기 어려웠고,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험들’의 묶음이었다. 집단적 여성으로서, 소수자로서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도 하였다.

공공장소에서의 괴롭힘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보다도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피해(김지선, 2006; Gardner, 1990; Pain, 1991)이다.¹⁰ 그럼에도 ‘추행’, ‘촬영’ 등 처벌법규가 명확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괴롭힘(성희롱, 쫓아오기, 시선 몸짓, 혐오표현 등등)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처벌되지 않는 범죄로서 형법에 의해 다루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겪는 괴롭힘과 폭력은 그 ‘일상성’으로 인하여 집단적 ‘여성’의 공통 경험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일련의 괴롭힘 행위는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를 ‘소수자’로 재확인하는 차별의 문제이다. 결국 집단으로서의 여성 전체만이 아니라, 나이 어린 여성,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 장애인 ‘다른’ 몸을 가진 여성에 대한 중층적 차별로서, 결국 한국사회의 소수자성에 대한 차별 문제이다.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괴롭힘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심적인 압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시선’부터, 신체적으로 직접적 심각한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살인까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하지만 시선, 성기노출, 몰래 카메라, 폭언, 성희롱, 강간, 추행, 살인 등 일련의 행위들은 서로 전혀 무관한 행위가 아니며, 결코 단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10) 김지선(200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삶: 사회적 구성과 결과, KS(주).

것은 아니다.

경험자들은 하나의 행위를 겪은 뒤, 향후 더 큰 위협과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측으로 인해 경험 이후 자신의 일상적 행동에 대한 자기 감시와 통제를 더욱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가해자의 보복자체가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주변인들에게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심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때문이기도 하다.

경험자들은 경찰 신고, 지인과의 의논,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즉시 사과 요구 등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방법을 구사하는 한편, 조력자이자 목격자로서 주변인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향후 대처 방법'을 상담자와 의논하면서 '앞으로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 경험자들의 가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길거리괴롭힘에 대항하는 집단적,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

3

[쟁점과 입장]

- 혐오라는 가랑비, 내 젖은 옷을 말리는 방법에 대하여
- '여성혐오범죄'라는 명명이 드러내는 "여성안심" 대책의 빈 공간
- '치정'과 '멜로', 그 경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묻다

혐오라는 가랑비, 내 젖은 옷을 말리는 방법에 대하여*

김흥미리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낮선 익숙함, 혐오

새삼스러웠다. 강남역에서 한 남성이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살해했다는 소식이 과거와는 달리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말이다. 여성이라서 죽는 일은 너무 흔한 나머지 익숙한 일이었다. 2009년 한국 여성의전화에 근무하던 때에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내가 했던 일은 그날 올라온 여성살해/살인미수 기사를 챙기는 일이었다(우리는 그 작업을 “분노의 케이지”라고 불렀다). 어느 해는 사무실 입구에 상시 분향소를 차리기도 했고, 또 어느 해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은 애도식’도 하기도 했지만, 밀려드는 현안들로 애도는 뒤로 밀렸다. 2016년 이전에는 연일 여성들이 죽거나 ‘죽을 뻔’ 했어도 세상은 그 문제로 논쟁하지 않았다.

* 이 글은 지난 2016년 7월 8일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단체에서 공동주최한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글입니다.

1980년대 말 화성에서 여성만을 골라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났을 때에도, 2004년 “여성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말을 남긴 연쇄살해범 유영철의 등장에도 한국사회는 단지 여성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해왔다. 유영철은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지만 그 진단은 여성에게 위협을 경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만 사용됐다.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면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이코패스 진단 이후에도 성별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2006년 강호순이 아내(들)을 포함해서 10명의 여성들을 강간/살해했을 때에도 젠더 삭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일어났고, 얼마 전 대전시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 중학생이 벽돌로 여성을 내리친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주목하는 시선은 부재했다. 그 일은 별다른 질문 없이 ‘묻지마 범죄’가 되었다. 꾸준히, 범죄의 대상이 왜 ‘여성’인지는 이 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성이 갖는 일상적 두려움이라는 감각은 끊이지 않는 여성 대상 범죄들 속에서 생겨났다. 끊임없는 여성표적범죄와 그때마다 여성을 조심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주거니 받거니의 하모니’ 속에서 대책 없이 당하고 삶의 반경을 축소하는 여성의 불안한 일상이 구축되어 왔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여성혐오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몸에 새겨진 두려움의 ‘감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낸다(때문에 힘의 응집을 통해 ‘두렵지만 두려움만이 아닌 것’으로 몸의 감각을 이동시키는 일이 혐오에 저항하는 아주 구체적 실천이 될 수 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 부산의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각목으로 무차별 구타했다.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들을 범행상태로 고른 이유가 무엇이나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아시잖아요”라고 답했다. 여성이라는 표적은 그렇게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공모된’ 표적이라 할만하다.

‘여자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다니!’

여성학자 허민숙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면 왜 ‘사이코패스’는 여성 앞에서만 ‘사이코’가 되는지, 충동조절 장애가 원인이라면 왜 그 ‘충동’은 하필 여성 앞에서만 조절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¹ 살해 충동을 느끼는 젠더 선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얼마 전 유시민도 JTBC <썰전>(5월 26일 방송분)을 통해서 정신질환의 표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어느 시대나 정신질환자가 있기 마련인데, 표현형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며,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여성 혐오적 망상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80년대 정신질환의 증상이 ‘누군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는 서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은 그때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들이 있다. 감시와 도청이 혼란 시절에 자신이 도·감청되고 있다는 환상을 가지기 쉬운 것처럼,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정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오인된 원한’이 깊어질 수 있다. 때문에 “여자들이 날 무시해서 그랬다”고 말한 범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해서 그는 여자들이 무시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나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다. 적어도 그의 상식에서 ‘여자들’은 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이고, 그가 가진 이러한 ‘기준’은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준 것이다. “여성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어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범인이 입은 피해란, 이런 것들이다. “출근길에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고 제 발 앞에 담배를 던지고” 간 것과 같은 일들 말이다. 그 일로 “화가 치솟아/ 어쩔 수 없이/ 해결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²는 범인에게 경찰과 검찰은 한결같이 여성 혐

1) 허민숙(2013),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 가정폭력, 멈추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 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30년 반여성폭력운동의 쟁점과 전망② 자료집.

2) 조선일보 2016. 07. 22일자, 강남역 문자 살인범, “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 없어... 여성에게 피해 입어 범행”.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1959.html

오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경찰과 검찰의 진단이 옳다. 그 정도 일로 여성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검경의 말대로 지금 사회에서 ‘정상범주’니까 말이다.

남성인지, 아니면 여성인지에 따라 주어지는 삶의 무대가 달라지는 세계에서 남성과 여성은 ‘무시’라는 (보편적)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곤 한다. 김치녀(한국여성을 비하하는 말), 맘충(엄마 벌레), 김여사(아줌마 집에 가서 밥이나 해!) 등의 말을 흔하게 듣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남성을 표적 살해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못한다. 여성들은 남성을 조심하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위협하지 않게 조절한다. 분노는 여성에게 허락된 감정이 아니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분노해봤자 들을 수 있는 응답은 ‘더 큰 분노’ 혹은 ‘더 큰 무시’, ‘더 심한 공격’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성은 종종 여성을 응징하는 방법을 택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657명, 미수포함 1,051명에 달한다.³ 이것은 신문에 기사화된 사건을 한국여성의전화가 하나하나 셈한 숫자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최소치’다. 가정폭력 가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이유는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이다. 이 ‘무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제 반찬과 똑같아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등이다. 요컨대 이것은 남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남성이 요구한 만큼 여성의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들이다.

혹자는 지금 시대의 혐오를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그 불안함이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되는 것이라고도 한다. 여성의 몸을 주요 대화 소재로 삼은 남성문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3) 이 수치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해 발표하는 “분노의 계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통계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도별 수치를 더한 것이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home

발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도 ‘청년’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청년세대의 상실감을 이야기할 때 ‘청년’은 누구 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청년에 ‘여성’은 포함되는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여성’에게 그 분노를 표출한다면,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아프다” / “아니, 너는 아프지 않다”

청년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젠더를 ‘남성’으로 가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생략 덕분에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지 질문하는 일도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시장의 주된 문제는 받지 못하는 임금만이 아니다. ‘어린/여자/청소년’들은 자주 일상적인 성희롱 문제를 호소한다. ‘청소년녀’라고 부를 때에야 발견되는 (결코 특수하다 할 수 없는) 성적 안전의 문제 말이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는 ‘보편’의 이름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특수한 문제인 것처럼(만) 느껴진다. 그리고 그런 ‘느낌’의 배경에는 남성을 ‘인간’으로, 여성을 ‘여성’으로 지정하는 혐오의 정서가 자리한다.

이때 ‘혐오’는 ‘불쾌함’이나 ‘기분 나쁨’ 정도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혐오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일에 기여해왔다.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근대화된 일본신민’이 ‘조선인’을 통치하는 일을 정당화 한 것도 ‘미개한-근대화되지 못한’ 조선인에 대한 집단적 혐오감을 배경으로 한다. 더 인간적인 집단과 덜 인간적인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은 나와 구분되는 대상집단에 대한 집단적 혐오의 정서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혐오는 타자화된 집단의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고통이 나(인간)의 고통보다 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게 만든다. 타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일이 죄책감 없이 일어나도록 돕고, 심지어 그것을 정의로운 일로 포장하는데 기여한다. 지금까지도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말하는 배경에는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조선인 혐오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서에서 조선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이상한 것이 된다. “우리가 기차길도 놓아주고, 너희가 근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켜줬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위, 그것이 바로 지배자의 위치다. 고통스러웠다는 피지배자의 외침을 삭제하고 그 위에 “너는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말이다.

조직된 저항이 만든 새로운 국면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수만 장의 포스트잇과 눈뜬이들의 발화 덕분에 보이지 않던 여성혐오는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는 중이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하시태그가 올라오다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 실질적 가해자입니다’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에 대해 “사회적 모순에 ‘잠재’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칼럼으로 응답했다.⁴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이 붙지 않았다면, 그 곳에서 일군의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코르셋 벗은 ‘남성’들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남성’들이 치마를 입고 여성혐오에 함께 맞서자며 거리시위에 참여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분노, 억울함,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테고, 그걸 몰랐다면 “뭐가 불편하세요?”,

4) 한겨레신문 2016년 5월 27일자, (정희진의 어떤 메모), “잠재적 가해자”,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5775.html>

“왜 그렇게 화가 나실까요?”라고 (그들에게) 질문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여성이 여성의 입으로 여성살해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이 공분을 일으키고, 그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남성을 혐오한다’는 진단을 가능케 하며, <말하기> 자체가 급기야 이들의 사진을 찍고 신상을 털어 경쟁하듯이 모욕댓글을 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저항은 이렇게 싸움의 국면들, 굳이 드러내지 않고 우아하게 살아도 되었던 이들의 무지와 무사유, 무감각을 가시화시킨다. 되짚어보면, 장애인 시설을 두고 ‘혐오시설’이라 부르는 이들은 충분히 많(았)고 앞서 말했듯이 여자라서 범죄 표적이 되는 일은 강남역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도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다. 존재에 대한 거부, 배제, 삭제는 공기처럼 뻘뻘하게 일상을 채우며 흐르던 것들이다. 존재를 삭제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언제 삭제했음?’이라고 응답하면서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 체계를 유지시키는 견고한 무감각의 연대였다. 애써 ‘혐오로 칭하지 않았을 뿐 일군의 존재들을 인간의 하위범주로 무리짓고/구별짓는 문화는 한국사회에 꾸준히 존재했다.

동일한 존엄의 무게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은 집밖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장애인),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성소수자), 스스로 조심하고 주체에게 보호받는 방식(여성)으로 존재의 흔적을 삭제하는 일에 발맞추기도 한다. 흑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끔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했듯이’(록산 게이, 2015:304), 권력이 날뛰는 세계에서 누군가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생존’은 저항을 품는다. 역사를 통해 목격하는 건 ‘저항’이 역사에서 사라진 적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떠올려야 할 것은, 공기 같은 혐오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저항이 조직되는 그 때, 부당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나도 존엄한 인간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성소수자들이 쏟아

져 나온 거리에서, 보호 말고 권리를 외치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혐오는 ‘가시화’된다. 공기였던 혐오가 가랑비로 내려와 내 옷을 적실 때 혐오는 ‘인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비에 젖은 옷을 통해 만연한 혐오의 정서에서 예외일 수 없는 ‘나’를 감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이다.

질문의 방향은 바뀌었다. 만연한 혐오를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혐오와 ‘나는’ 대체 어떤 관계인 걸까. ‘나는’ 혐오를 어떻게 수신하고 있는가. ‘정의로운/정의롭고 싶은 나’는 혐오의 예외인가?

인간을 인간으로 사유하는 일

나는 왜 어머니를 전업주부로 기억할까. 그녀는 평생 집의 안과 밖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SBS <순간포착-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어째서 여전히 “기도하면 아들 낳는 바위”를 전설이라며 소개할까(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2등 사람이 누구인지 감지하지 않을까), 언론은 왜 앞 다투어 ‘박유천 사건이 물어버린 3대뉴스’ 식의 제목을 뽑아낼까(오마이뉴스는 왜 예외가 아닌가, 피해 여성의 증언은 가십으로 수용되어도 무방한가), ‘여성’의 언어, 경험, 고통, 노동은 왜 이리 사소할까. 어쩔 이렇게 가벼운가 말이다.

혐오가 해온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여성의 경험을 삭제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그들의 존엄은 생각가능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차별은 문제라고 여기는 이들조차 눈앞에 보이는 차별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정서, 그곳에 혐오가 자리한다. 어떤 이들은 여성혐오 말고 다른 말을 쓰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그 말이 흔해지고 난 후부터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별로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서, 혹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식들이 흔한 이유라든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별에 부응하는 정서 구조라든가, ‘안’ 알아듣는 것이 ‘정상상태’로 인정받는 경로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극적인 변화다. 이제까지 계속 질문(만) 받고, 설명을 요구받은 이들이 거꾸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 사건이 왜 정치적인 문제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당신들에게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를 질문할 수 있다. 어쩌다 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른 무게로 감지되는지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 판단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 남교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⁵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만, 정작 초등학교 교장은 71.3%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 마찬가지로 대학교수의 84.9%는 남성⁶이라는 점은 이상하다고 감지하지 않는 지배적인 정서를 쫓다보면, 결국 ‘혐오의 정서와 통합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불평등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외려 편안함을 느끼는 것,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민하다고 “(내가)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을 생성/유지/강화하게 돕는 나의 정서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다.

이것은 내안의 혐오와 직면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성찰의 기회이다. 나는 인간이지만 너/들은 나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느낌적 느낌, 그 느낌이 어떻게 내 몸에 부착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외피를 쓰게 되었는지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년 여름 눈앞에 펼쳐지는 일련의 장면들은 이제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일어난 적 없는 광경들이다. 보호받지 않고 통제되지도 않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 이제껏 “보호해줄게”라고 답하던 세계는 이제 수신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보호나 통제 말고 ‘여성’을 인간

으로 마주하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도구화/대상화/성애화된 여성-몸을 일순간에 인간으로 사유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살림밧천 만팔이나 고생맡았던 누이 대신 노동자-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일이고, 이소선 어머니와 민가협 어머니, 위안부 할머니를 ‘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하는 일이다. 여성의 몸에서 ‘성별’을 떼어내는 일이 얼마만큼 급진적이며, 정치적인 사건인지 직면해야 하는 일이다. 인사동에 붙은 붉은 물감 묻은 생리대 전시를 보면서 그것이 왜 ‘정치’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고,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구조적 모순에 문제제기하는 강남역 봉기를 눈앞에 보면서도 듣는 자신의 불편감에만 집중하는 건, 구조적 모순에 결합된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심일 수 있다. 불편감이라는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젠더화된 세계의 모순과 직면할 수 있겠는가.⁷

강남역 봉기를 기회로 불쑥불쑥 이런 질문이 든다면, 먼저 나에게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왜 나는/당신은 여성혐오라는 단어가 불편한가. 그것은 왜 적절히 다른 언어로 변형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가. 왜 당신은 성찰 없이 말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왜 몰라도 되는가. 왜 강남역 10번 출구 앞 4만 여장의 포스트잇에 적힌 이야기를 듣지 않을 방도를 고민하는가.

5) 연합뉴스, 2016년 6월 15일자, “초등교사 62명 중 남자 2명뿐”...초중고 12년 男 담임 못 만나기도(종합),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3/0200000000AKR20160613185851064.HTML>

6)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교육 부분, 학교급 및 직위별 여교원 비율, 직위별 고등교육기관의 여교원 비율, 출처: <https://gsis.kwdi.re.kr/gsis/kr/charts/chartServiceInfo.html>

7) 젠더화된 세계. 어려워 보이는 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다. 밤길을 두려움 없이 걷는 느낌을 ‘여성’은 알지 못한다. 또 밤길을 두려움에 떨며 걷는 느낌을 ‘남성’은 알지 못한다. 몸의 생김새에 따라 배치되는 무대가 달랐고 덕분에 눈앞에 늘 펼쳐져 있지만 그쪽 세계는 이쪽 세계를 알 수 없었다. 그쪽도 이쪽도 아닌 이들은 과묵하게 양분된 이 세계의 사이에 끼이거나 미끄러지는 식으로 이쪽저쪽의 타자로 살아간다.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연결

2016년 4월 수천 명의 멕시코 시민들이 여성 살해와 성폭력, 여성혐오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구호는 “우리는 계속 살아있고 싶다”였다. 이 시위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여성 살해를 ‘느린 집단학살(slow genocide)’로 표현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여성 살해와 직면하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 “나는 안 때렸다, 나는 안 죽었다”는 말로 피해갈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항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연결’이기를 바란다. 바꿔 말하면 ‘연결이 곧 승리’일 수도 있겠다. 엄기호는 칼럼 〈사랑과 난입〉⁸을 통해 강남역 10번 출구를 바로 이 ‘난입의 장소’로 지목했다. 그곳은 이 사랑이 파탄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라곤 희귀하던 이 나라에 이제야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도 했다.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와 엄기호의 글이 겹쳐지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 같다. 이 때의 저항은 적대적/억압적 관계에 있는 가부장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주체의 변화와 관계의 질적 전환을 향한다. 우리가 맞이할 다른 세계는 가부장-개인이 삭제된 세상이 아니라 가부장제가 전복된 세계다. 그것은 나문희의 가출(난입)로 촉발됐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다. 나문희 여사(극중 문정아)가 가출 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고 길길이 날뛰던 드라마 속 남편 친구(극중 김석균)는 점차 질문을 자신에게 향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둘이 함께 걷고 있다고 여겼던 기차길 위에 홀로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쫓은 건 자신임을 발견하면서, 그는 고현정(극중 박완)에게 인터뷰를 자처

8) 경향신문 2016. 05. 29일자, [엄기호의 단속사회] “사랑과 난입”,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92059005&code=990100

하며 혼자만의 무대였던 지난 삶을 (재)해석해 낸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백 가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천 가지 만 가지... 알고 지은 죄는 사죄하고 반성했을 텐데 진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로 상처받고 아직도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한참을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이제라도 아내 정아를 보내주기로 결심한 그는, 정아를 보내주면서도 정아와 함께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무대는 바뀌었다. 정아의 곁에 서는 일은 그제야 시작되었다.

중식이밴드 중식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올라왔고,⁹ 여협 웹툰 작가로 알려진 레바가 록산 계이의 〈나쁜 페미니스트〉를 읽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¹⁰ 2016년 4월의 중식은 2016년 8월의 중식이라는 다르며, 2016년 8월의 레바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여성시대의 문제제기에 온힘을 다해 분노했던 2015년의 레바와 다른 세계를 산다. 이러한 ‘전환’은 페미니스트의 저항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변화이고, ‘그들이’ 그 말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수신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전환이다. 요컨대 저항하는 것과 저항을 수신하는 것은 시간차가 있긴 해도 상호 순환적이다.

강남역 봉기가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거냐고 했지만, 강남역에 모인 이들은 그게 아니라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이모의 가출을 남들은 ‘복수’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복수가 아니라고 말했다.¹¹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삶에 대한 갈망이고, 남자(개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말하기다. 이런 ‘갈망’, 이런 ‘말하기’는 많은 이들을 지금과는 다른 세계로 초대한다.

9) 오마이스타 2016. 08. 17일자, ‘여협 논란’ 중식이밴드 “요즘 페미니즘 공부합니다”, 출처: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235716

10) 허핑턴포스트 2016. 08. 18일자, “웹툰 작가 레바가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그 여파가 엄청나다 (트윗반응)”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18/story_n_11580086.html

11) “나 집 나온거 복수 아닌데. 아, 니가 복수 같다니까.. 아, 흑맥주 한 병 먹다가 그 생각하니까 입도 마음도 쓰네.. 아 나 집 나온거 진~~~짜 복수 아닌데.. 그냥 그저 나 좋아하는 맥주 한 병 그냥 마음 편하게 먹구 싶어서”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11회, 극중 정아이모 대사 중)

'여혐 논란' 중식이밴드 "요즘 페미니즘 공부합니다"

[인턴] <슈퍼스타K>로 뜬 가수 중식이밴드의 중식이
공 서명함(yesbto) 사진 문종원(moonster10) 편집 유지영(alreadyyehans)
하지만 이후 우에노 치즈코 교수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를 읽는 등 관련 서적을 읽으며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여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중식은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라는 민감한 주제를 드러내 놓고 편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 즉 남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예절한 남자'입수목 반드시 알아야 할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남성권력을 (그동안) 억압받고 희생당해온 여성들에게 토스(넘김)하면서 책임감도 해소해줄 수 있는 게 페미니즘 아니겠냐"고 말했다.(단비 뉴스 8월 15일)

국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여성혐오적인 요소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는 고백도 전했다.

"그사이에 나와야 할 노래가 여성혐오적인 노래였어요. 원래 작업이 끝난 상태였는데, '객관적의를 하자'고 했죠. 자기결정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확실히 여성 혐오였습니다."(단비 뉴스 8월 15일)



(좌) 중식이밴드 중식이가 페미니즘 공부를 시작했다는 기사
(우)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를 아직 다 못 읽었다는 트윗과 함께 '누군가에게 상처 되는 만화를 안그려야 할텐데'라고 읊조리는 레바. 그리고 그의 글에 대한 댓글.

그들도/우리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세상은 아닌 어떤 곳으로 말이다. 정아이모 남편도, 중식이도, 그리고 레바도 이제 그런 다른 무대에서 다시 '함께' 살아간다.

강남역 봉기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함께라면 저항이 가능하다는 경험, 저항해서 바뀌는 기억,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적대적 타자가 아니라는 감각이다. 점점 혐오와 직면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코르셋을 벗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권력감지센서'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지난 6월 6일 홍대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반대 시위의 주요 구호는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였다. 변화는 연결하고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다. **▶**

'여성혐오범죄'라는 명명이 드러내는 '여성안심' 대책의 빈 공간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그 후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의 한 상징이 되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명한 2-30대 여성들이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명명하였고, '강남역 10번 출구'라는 현실 공간에서 추모와 저항의 움직임이 실질화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 전체에 반향을 가져왔다. 여성혐오범죄냐,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냐에 대한 논란은 SNS나 각종 언론뿐만 아니라 정책책임자들이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여성이라서 살해당했다"라는 목소리에 "남자가 살인마냐"라는 피켓으로 대응하는 불편함과 분노의 대응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논쟁의 장을 통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이전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던 "여혐"이라는 단어를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이후 정부는 이 사건은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문지마 범죄”라고 진단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분리대책 등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CCTV 확충 등 범죄안전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환경개선과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안심택배 등 그동안 실시되어 왔던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각종 안전정책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성가족부와 경찰, 지방정부들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여성폭력예방교육, 아동안전지도, 안심귀가길, 안심귀가서비스, CCTV 등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폭력범죄 예방정책에도 접근할 수 있다. 여성이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건강,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재구성하려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이 전북 익산시를 비롯한 66개의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늦봄부터 젊은 여성들을 SNS뿐 아니라 거리로 나오게 했던 힘은 여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앞선 정부의 여성범죄안전대책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과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범죄안전대책 등 각종 안전 정책의 빈 공간은 무엇인가?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를 왜 ‘여성혐오범죄’라고 명명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앞선 질문에 대해 차례로 대답해나가며,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들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성범죄안전정책과 그 반작용

●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의 핵심으로서 범죄환경개선

지난 6월 1일 중앙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여성범죄안전정책은 경찰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비상벨 설치나 시설, 환경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성대상 범죄취약요인을 집중 신고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한 후,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골목길,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등 총 5,493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604억의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경우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실시한다.

이러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대책의 핵심은 “범죄예방환경사업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공건물 내 남녀공용화장실을 위협성이 드러난 범죄취약환경으로 설정하고, 남녀공용화장실 이외에도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의 환경개선은 잠재적 범죄자들인 남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감시의 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환경범죄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최근 한국사회 범죄예방정책의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지리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범죄대상의 접근성을 낮추고 범죄자의 체포 가능성을 높인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CCTV나 순찰을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설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외부침입자가 접근을 하

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구성한다. 최근 국토교통부, 법무부나 경찰청, 지방자치정부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으며, 도시 내 건축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인식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¹

범죄예방환경의 구축을 통해 여성대상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일명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 후 안전대책에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 이후 신안군과 목포경찰청은 여성범죄예방진단팀을 가동하여 범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학교관사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마을별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주민들에 의한 취약지 순찰 등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하였다.² 이러한 범죄예방전략의 방향은 2012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왔던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동행하는 ‘여성안심지킴이’나 ‘여성안심귀갓길’,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안심택배’, CCTV나 도난방지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여성안심주택’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예방정책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그 효과성이 일관되게 검증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³ 그렇지만 적어도 CCTV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여성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1) 초기 건축설계 및 조경설계 등 물리적 환경의 설계 및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에 집중하던 셉티드는 최근 2세대 셉티드(Second generation CPTED)라 하여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민간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 강화와 빈곤 및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환경의 해결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뉴시스 광주/전남, 2016년 6월 19일자, “성범죄 더 이상 안 돼, 신안군 안전한 섬마을 만들기 간담회”,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8_0014160268&clD=10809&pD=10800
 3) Leclerc, Benoit, Yi-Ning Chiu, Jesse Cale, and Alana Cook,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the Lens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Toward the Accumulation of Evidence-Based Knowledge and Crime Prevention,”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February 4, 2016. doi:10.1007/s10610-015-9300-z 참조.

나타난다.⁴ 일반인들이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CCTV나 순찰 등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듯이,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각종 “여성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하는지는 꽤 오래되었다. 몇 년간 실시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이후 “확대”라는 명목으로 도돌이표를 그리며 반복될 뿐이다.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그 두려움이 막대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화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다.

● 범죄예방의 핵심으로서 ‘구분과 분리의 강화’



서울시 여성안전프로젝트(여성안전지킴이집) 홍보물

여성대상범죄의 예방 및 안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다 ‘안전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여성범죄 예방정책으로 등장한 각종

“여성안심” 프로젝트는 늦은 밤 귀갓길, 으스스한 골목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3자인 동행자 내지 감시인력(CCTV와 같은 기계를 포함)을 배치하거나 낯선 남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여성안심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늦은 밤 혼자 걷는 귀갓길, 어두운 공간이 있는 골목길, 여성

4) 정진성, 장윤식, 방범용, “CCTV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14, 341-368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 등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은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진단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방법용 CCTV나 비상벨이 설치되고 범죄를 감시할 수 있는 순찰과 동행서비스가 실시되며 택배기사 등 낯선 사람의 접근은 차단된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부산도시철도에서 실시하는 지하철 “여성배려칸”의 운영 역시 분리와 차단을 통한 안전한 공간 구성 정책이다.

‘안전한 공간’의 구성은 공간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안전하지 않은 공간, 즉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확인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이로부터 분리와, 안전한 공간과 안전하지 않은 공간을 분리한다.

이러한 범죄예방정책에는 두 가지 큰 모순이 있다. 첫째, ‘안전한 공간’의 구분과 분리는 사람들에게 “그 이외의 공간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부는 범죄예방환경의 구축을 주요한 범죄예방정책의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나, 범죄와 두려움의 문제에 안전한 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 증가하였다.⁵⁾ 둘째, ‘안전한 공간’의 구축으로 범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 예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후적인 정책일 뿐이다. 범죄취약공간이라는 진단은 기존에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 혹은 유사지역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내려진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하지 않은 공간의 목록은 사후적으로 늘어날 뿐이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남녀공용화장실은 안전하지

5) Carina Listerbor, “Understanding the Geography of Women’s Fear: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Fear and Space”, Liz Bondi et al, Lanham, Subjectivities, Knowledges, and Feminist Geographies: The Subjects and Ethics of Social Research, Rowman & Littlefield, 2002, p. 34.

않은 공간으로 추가되었으며, 신안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섬마을 교사의 관사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분리와 차단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려는 범죄예방정책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가 발생한 물리적 공간과 그 유사 공간에 대한 분리와 차단에 집중하여 이 공간을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분리되어 안전하다는 설정은 오히려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또 다른 범죄의 발생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범죄 취약영역의 확대는 사후적인 예방조치로서의 범죄예방책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시킬 뿐이다. 결국 “여성안심” 프로젝트는 여성이 가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뿐 아니라 강화하기까지 한다.

공사이분법에 기초한 범죄예방

두려움의 성별 지리학 “여성안심”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범죄예방정책에 의해 오히려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지, 강화된다는 점도 문제적이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의 재생산을 통해 공적 공간의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페미니즘은 시민의 범주에서, 그래서 합리성과 이성의 영역인 공적 공간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한 남성에게 의해 대표되는 가족의 사적 영역에 여성을 위치시켜온 전통적 자유주의 철학과 실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해왔다. 공사이분법에 기초하여 여성의 영역을 제한시켜온 법과 제도와의 전투는 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자와 주변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설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비록 공식적인 제도에서의 여성배제의 문제가 가시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공사이분법에 기초한 성별사회구조는 여러 가지 숨겨진 변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범죄와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

은 그러한 공사이분법의 변주 중 하나이다.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과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각종 “여성 안심” 프로젝트가 전제하고 있는 범죄는 낯선 남자인 외부인에 의한 범죄이며, 범죄환경은 공공의 공간과 혼자 있는/사는 여성들이다. 도시의 밤거리, 공공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 지하철, 주차장 등의 공공 공간은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진단되며, 혼자 있는/사는 여성들은 비록 집에 있더라도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은 위험한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거나 혼자 사는 여성들과 낯선 남자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제3자(지킴이 혹은 CCTV)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범죄예방정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나 혼자 있는/사는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심과 낯선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다.

현재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각종 대책은 바로 두려움의 성별화된 지리학을 강화한다.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공간의 성별화된 구성과 구조화된 성별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여성 두려움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women’s fear)’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한 예방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젠더와 두려움의 지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성들이 가진 범죄의 두려움이 결국 여성의 삶 모든 단계에서 이동성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데에 주목한다.⁶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 대해 취약성과 두려움을 인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공사영역에서의 성별화를 내면화한다는 점에서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⁷ 이 때 성별 분업과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며 가족 내에서 한 남성에게 의

6) Painter Kate, “Different worlds: the spatial, temporal and social dimensions of female victimization”, Evans, Fife, and Herbert(eds), Crime policing and place: essays in environmental criminology, Routledge, 1992 참조.
7) Valentine, Gill. “The Geography of Women’s Fear.” Area 21, no. 4, 1989, pp. 38590 참조.

해 다른 남성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시적인 암시를 만들어낸다.⁸ 공적 공간에 대한 두려움의 지리학에 기반을 둔 여성대상 범죄안전대책은 여성에게 공공장소나 혼자 있는/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함으로써 사적 공간과 남성의 보호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에 기초할 뿐 아니라 이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이 가진 범죄 두려움의 지리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의 상황과 거리가 있다. 여성이 가지는 범죄의 두려움은 공공장소에서 혹은 낯선 남자에 의한 외부인의 공격에 대한 이미지로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여성들이 직면하는 폭력은 집에서 내지 아는 관계 혹은 친

호신용품	18,424 트윗
#강남살인남	67,349 트윗
#살아남았다	20,324 트윗
스프레이	3,778 트윗
여성혐오	30,175 트윗
살인사건	31,690 트윗
고인의 명복	7,057 트윗
잠재적 범죄자	5,685 트윗
여자라서	8,351 트윗
모든 남자	12,360 트윗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당시 트위터 갈무리
*출처: 오마이뉴스(16.5.18)

밀한 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진 범죄 두려움의 공간은 어둡고 음침하고 혼자 있는 장소로 이미지화되며,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모두 이러한 공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책은 여성들이 보다 더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는 아는 사람에 의한 혹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 위험한 공적 공간과 대비하여 남성에게 의해 보호되는 사적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들을 비가시화하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¹⁰

8) Valentine, Gill, “Images of Danger: Women’s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ale Violence.” Area 24, no. 1, 1992, p. 27.
9)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낯선 사람에게 심한 성추행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31.0%, 강간미수 30.4%, 강간은 9.3%로 낮았다. 또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의 발생율은 34.4%로 나타난다.
10) Warrington, Molly. “I Must Get Out”: The Geographies of Domestic Violen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6, no. 3, 2001, pp. 36582 참조.

결국 공간의 분리와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여성범죄에 대한 정책들은 여성들이 실제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성별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다. 안전한 사회가 아닌 안전한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범죄와 그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갖는 비극은 그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의 성별 지리학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는 데에 있다.

성별불평등한 '여성혐오'사회에 대한 대응의 요구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공유와 피해자에의 동일시

여성이 여성이라는 점 이외에는 구체적인 살해동기 없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은 비단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범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집단적 목소리로 표출되고 그것이 "여성혐오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로 연결된 계기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 SNS에서 #강남역살인남, #살아남았다라는 해시태그와 '호신용품', '여성혐오', '여자라서'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의 상위를 차지하였다.¹¹ 단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인식은 스스로가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자각과 여성을 해할 수 있는 "모든 남성"들에 대한 집단적 불안감, "호신용품"을 찾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실제의 두려움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폭발은 젊은 여성들에게 익숙하고 보편적인 공간인 강

11) "여자라서 죽었다" '강남역 살인남' 사건에 경악, 오마이뉴스(16.5.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0554 (검색일: 2016. 8. 30)

남역이라는 공간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에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일 수 있다.¹² 피해대상을 선택한 살인범죄자의 동기가 "여성이어서"라는 사실은 더욱 피해자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나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성에 대한 인식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의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확인된 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의 큰 추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집단적 움직임의 주체인 그 여성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스스로를 동일시한 지점이다.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바탕에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갖게 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의 공유를 통해 이들이 연대한 맥락에는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와 여성에 대한 공격을 가능케 하는 '여성혐오'의 실존에 대한 인식이 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사회를 놀라게 했던 강남역 10번 출구의 추모 행렬을 시작하게 했던 트위터 글은 "이번 참혹한 사건 피해자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애도합니다"로 시작된다. 추모현장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¹³ 역시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혐오사회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 여성혐오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여성혐오범죄'

여성혐오는 가부장제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문화적 태도이며,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들은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구성 속에서 여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타자화되고 대상화되는 방식으로 여성혐오의 실천을 설명한다. 가부장적 남성동성사회에서의 권력은 타자화된 여성의 섹

12)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은 왜 '살아남았다'라고 쓰나-여성학자 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교수 인터뷰, 한국일보(16.5.19), <http://www.hankookilbo.com/v/d308543c366347e88b52e54b02ebd3e8> (검색일: 2016. 8. 30)

13) 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문지마 살인의 타킷은 왜 항상 약자인 여성인가", "여자라서 죽었어요", "여혐은 이제 여성의 생존 문제입니다", "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당하는 사회가 언제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공용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문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입니다", 한겨레(2016.5.18.)

슈얼리티에 대한 정복과 획득이며, 남성동성사회의 편입은 여성이 아님(타자가 아닌 주체)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우에노 치즈코는 이러한 남성동성사회에서 남성집단의 유대와 집단 내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이 여성혐오의 실천이라는 점을 지적한다.¹⁴ 여성혐오는 불평등한 성별 사회 구조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문화적 태도라는 점에서 성차별이다.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을 당연시하고 차별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여성혐오의 문화가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적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여성혐오”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사이버 공간에서였다. ‘된장녀’, ‘개똥녀’, ‘김치녀’ 등등 젊은 여성에 대한 비하와 욕설들이 사이버 공간에 등장하고 혐오표현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는 ‘일베’같은 커뮤니티가 출현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저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조건과 더불어 정치적 주체로서의 지위에서조차 밀려난 젊은 남성들의 불안이, 정책적 관점으로 세력화된 페미니즘과 성평등적 제도의 확산에 대한 백래쉬(backlash)와 결합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혐오 표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지금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¹⁵ 여성혐오표현의 폭발은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과 인식 역시 끌어냈는데, 단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댓글만이 아니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나 언론이 사용하는 표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 때 비판의 주된 키워드가 ‘여성혐오’였다. 혐오표현의 미러링 전략을 구사했던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있다.

여성혐오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쟁점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

14)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참조.
 15)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진보평론 제57권, 2013, 33-56쪽; 손희정, “혐오의 시대 -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제32권(May 2015), 2015, 1242쪽 참조.



맥시코리아 2015년 9월호 표지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흐름은 그해 9월 논란이 되었던 맥시코리아 표지에 대한 ‘메갈리아’ 중심의 반대 여론전과도 연결되는데, 당시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및 사체유기의 이미지와 “The Real Bad Guy”라는 제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지 “나쁜 남자”의 성적 판타지로 구성하는 ‘여성혐오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명명하였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여성혐오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약자인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과 폭력의 피해로부터 여성인 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감각은 그것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극단적인 살해의 형태이든, 남성들만의 카톡방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성폭력에 대한 묘사이든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해 성별불평등한 여성혐오사회에서 일상화된 여성폭력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에서 여성들이 명명한 ‘여성혐오범죄’는 혐오범죄나 묻지마 범죄 등 범죄의 동기나 양상에 대한 기존의 범죄학 논의에서의 용례가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폭

력,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공간에 실재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현재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은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¹⁶을 다루기 위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도구도, 그리고 두려움의 내용도 모두 낮은 사람에 의해 혼자 있을 때 공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과 '여성혐오범죄'의 명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이나 장소에 한정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화하고 비인격화하는 그래서 쉽사리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상적인 여성혐오의 실체는 여성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하는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중한 형태의 성폭력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적 괴롭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양적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¹⁷ 질적 연구 역시 여성들이 남성성이 지배적인 공적 공간, 다시 말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 남성과 같이 있지 않는 여성에게 추근거리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나 운동하는 여성을 조롱하기 등과 같은 남성성을 표출하는 행위방식이 공적 공간에서 지배적일 때

16) 2010년부터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일관되게 성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지선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김은경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최수영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참조.

17) 김지선, "피해경험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8호, 2004년, 221-267쪽 참조.

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⁸

그러므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정책은 특정 장소를 안전한 공간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공적/사적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공사이분법과 성별화된 범죄 이미지로 구성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해에 기초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특정하는 안전정책은 두려움을 재생산할 뿐이다. 안전한 공공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안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말하는 '위험'의 실재들을 구체화하고 그 위험들을 공간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남성성의 작동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위험'이라는 것을 가시화하고, 연령, 사회적 계층,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각각의 구체화된 위험들을 다루는 범죄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가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성들 혹은 남성성이 지배적인 공간 자체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의 야외활동이나 야외 운동을 장려하는 등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환경의 구성 등 남성들의 수나 남성적 행동이 지배적인 공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역시 필요하다.

안전한 공간의 재구성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심" 프로젝트는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사회에서 공간의 성별화된 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파생되는

18) VALENTINE, GILL, "Women's Fear and the Design of Public Space," Built Environment (1978-) 16, no. 4 (1990): 300302.

‘치정(癡情)’과 ‘멜로’, 그 경계에서 데이트폭력을 묻다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경찰과의 치맥파티’로 데이트폭력을 근절한다고?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폭로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넓게는 전 애인, 현 애인, 부부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의미하며 물리적 폭력을 비롯하여 정서적, 언어적, 환경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보진영’ 내에서 활동했던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전 애인들의 폭로, 의학전문대학원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사건, 술에 만취한 애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사진을 찍고 배포한 남성들, 헤어진 전 애인이나 아내에게 염산을 뿌리거나, 납치, 감금, 살해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사회의 각 분야를 아우른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와 유형의 가해행위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보다는 신체적, 성적 폭력피해가 심했던 사건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 집

공간의 성별화는 여성에게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만이 적절하고 익숙하며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여성의 삶과 생활에서의 활동성과 이동성을 제한한다. 그리고 안전한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는 여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존하라는 것 혹은 그 때 그 장소에 가지 말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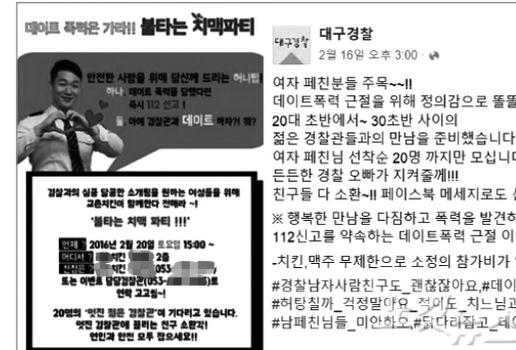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러한 안전 대책을 거부한다. 여자라서 피해자가 되는 사회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느 장소도 어느 시간도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 이제 성별화된 이데올로기에 기댄 여성대상범죄대책을 뜯어내고,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여성혐오사회에서의 위험들로부터 안전개념과 안전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해야 할 때이다. **빈**

단으로 구성하고, 공포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다.¹

2016년 2월, 경찰은 데이트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근절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² 신고는 급증했다. 이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꺾을대로 꺾어 터져 나온 데이트폭력의 문제가 한 달 만에 근절 될 리 만무하고, 공권력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심을 잘 못 짚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대구 경찰은 “데이트폭력은 가라!! 불타는 치맥파티”라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데이트폭력을 방지하지 위해 여성들이 2-30대 남성경찰과 폐친(페이스북 친구)을 맺고, 이 참에 소개팅도 하자는 내용이었다. 여성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남성경찰이 보호해주겠지만, 그 여성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같이 치맥을 먹는 ‘소개팅녀’로 전락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희화화시키면서 성적대상으로 다시 고정시키는 어리석음, 젊은 남성 경찰과 친하게 지내면 데이트폭력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은 공권력을 작동하는 주체와 맥락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개별 남성이나 남성경찰이 여성을 보호해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남성성, 여성성이 구성되는 구

1) 인천일보, 2015년 12월 27일자, “전 여친에 염산 뿌린 남성 자수...남치목적 전기충격기도 구입해”, 출처: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no=683746>, 세계일보, 2015년 11월 4일자, “전 여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돈 뺏은 30대 남”,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04/20151104000433.html?OutUrl=naver>, 매니투데이 2015년 5월 25일자, “헤어지자?! 살해, 암매장까지...과격해지는 데이트폭력”,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2414162552093&outlink=1>
 2) 경찰청은 지난 2일 데이트폭력 대응체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성,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간 폭력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업무까지 맡는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4대약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스톱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방안 검토 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출처: 한국여성의 전화 화요논평,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24274



대구경찰 페이스북에 게시된 데이트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글 (사진출처: 노컷뉴스)



이상호 무안경찰서장과 '데이트 폭력 전담'팀원들이 남약 신도시 내 상가에서 데이트 폭력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 광주일보)

조와, 개인이 그것을 수행(해야만)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별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 상징적이고 기호화된 의미로서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남성성을 골간으로 폭력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과 과정을 꼼꼼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폭력을 용인하고, 추동하는 구조에 대한 탐색과, 개인의 일상을 넘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젠더규범을 유지시키고 강화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데이트폭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언어가 만들어지면 피해는 발견되고 급증한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언어가 대중화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데이트폭력은 아마 인류 역사상 언제나 존재했(을 것이)고, 그만큼 빈번했다. 지금 우리가 데이트폭력이라 부르는 것들은 과거 ‘치정 폭력’, ‘치정 살인’의 현대화된 언어이고, ‘애뜻한 로맨스’라 믿었던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은 이제 스토킹이라 부른다. 가정(아내)폭력은 과거 ‘갈로 물베기’라고 표현되면서 심지어 경찰이라 할지라도 제3자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부싸움/사랑싸움’이었다. 또한 90년대 말 ‘서울대 신교수 사건’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서, 성희롱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이름 없는 폭력’에 불과했던 성희롱은 이제 법과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예방과 해결 방법까지 알려져 있다.

언어가 만들어지면 피해는 발견되고 급증한다. 일상적이었던 것이 언어화되었을 때, 그제야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생성은 개인과 개인,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 맺음과 무기력한 소통과정으로 인해 피해의 심각성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터져 나오는 폭발적 저항의 결과이다. 언어는 중립적인 듯이 보이지만 그 언어에 연루된 사람, 위치,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활용되는 매우 ‘정치적인’ 속성을 품고 있다. 과거 아내폭력/데이트폭력이 사랑과 로맨스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언어야말로 문화, 담론의 헤게모니를 함축하는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저항적 언어가 만들어지고, 알려지는 것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역차별, 꽃뱀, 그리고 무수한 00맘, 00녀 시리즈’ 등 여성혐오적인 공격으로 되돌아왔다. 문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저항의 언어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에 다다른 또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명명되지 않고 재개념화

되지 않은 성차별적 문제들은 차고 넘치지만, 여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여성혐오와 폭력은 저항에 대한 ‘효과적인’ 제압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폭력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 Stark³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강압적 통제”로 개념화하면서, 폭력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 여성을 공포로 몰아넣음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압적 통제는 성평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성에 기반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이 사적공간에서 실행하는 지배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이 사적영역에서 행하는 활동들을 쉽게 비난하고 통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성역할에 대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제한들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성차별적 사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폭력을 저질렀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폭력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강고한 젠더규범이다.

‘소라넷’ : 여성의 사적 공간에 대한 강력한 통제방식

지난 해 말, 인터넷 커뮤니티 ‘소라넷’⁴의 존재와 그 사이트의 내용들은 여성혐오가 사적 공간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와 더불어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하는 집단적 조롱과 통제의 방식을 보여준다. 1999년부터 시작된 소라넷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평균 조회수 5만 건을 기록하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했으며, 100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소라넷은 초기 주로 ‘야한 이야기’를 게시하고 링크를 걸어놓는 수준이었으나, 더 자

3) Stark, E.(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허민숙(2012),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2권 2호, pp. 78-79에서 재인용.

4) 소라넷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를 지나면서 평균 조회수 5만건을 기록하는 대형 사이트로서 10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소라넷vs 경찰" 16년 숨바꼭질 전말, 일요신문, 2015년 11월 30일자, 출처: http://l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3624

극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관심을 받으면서, 부인, 여자친구, 엄마, 누나, 여동생, 골뱅이녀(술에 취한 여성) 등등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찍고 공유하고, 함께 강간을 모의하기까지 하는 ‘거대한 강간 왕국’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 쓰러져있는 여성에 대해, ‘술도 약한 주제에, 자기 몸단속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며,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조롱하고 분노했다. 한편 이들은 ‘초대남’과 같은 문화를 통해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혼자만 ‘나쁜 놈이 아니라는 불편함을 완화시키면서 남성연대를 공고히 한다.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건화 됐을 경우 ‘재수 없어서 걸린 것’,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정당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통제이다. 남성으로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이 상대에 대한 지배와 폭력의 형태로 갈음되고, 가부장제, 분단체제, 신자유주의 질서와 같은 구조적인 모순이 개인적인 형태로 복수되고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사적 폭력은 남성들의 자기분열과도 연관된다. 우에노 치즈코는⁵ “호색한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사실은 남자들이 ‘남성됨’이라는 성적 주체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이라는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성적으로 남성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자라는 시시하고 불결하며 이해 불가능한 생물에게 욕망의 충족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남자들의 분노와 원한이 여성혐오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라넷과 같은 커뮤니티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정당화, 규범에 벗어나는, ‘조신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통제가 연결되는 지점이자, 자기분열의 상징이며, 수호하고자 하는 남성성이 훈련되고, 재현되는 강력한 규율적 성격을 가진다.

5) 우에노 치즈코 저, 나일등 역(2010),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p.16.

남성성 수행으로서의 데이트 성/폭력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남성성이란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특별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다. 또한 이는 성역할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18세기 이후 여성성과의 관계적 개념으로 발달된 것이다. 사회학자 R.W. 코넬에 따르면⁶, 남성성이란 젠더(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역할 규범) 관계 속의 장소이자, 그 장소에서 남녀가 관여하는 실천이며, 그런 실천이 육체적 경험, 인격, 문화에서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즉, 젠더는 특수한 문화적 조건 속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남성성은 가족/학교에서 남자다워야 한다고 주입되는 성역할, 포르노그래피 등을 통해 전달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스포츠와 군대로 조직적, 위계적 관계 등을 습득하면서 연습된다. 연습된 남성다움은 일정한 때가 되면, 이성애 연애 관계에서 비로소 실천되는데, 돈을 더 쓰고, 무거운(혹은 가벼운) 가방을 들어주고, 어두운 밤길을 데려다주면서 ‘보호자’의 권한을 확보한다. 더군다나 여성은 성적으로 무지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에 둔감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성의 No는 Yes를 의미할 뿐이므로, 여성은 성적으로 가르쳐주고, 리드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남성성은 훗날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밀봉해지는데, 자녀와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그/녀들을 통제할 권리와 결합되며 완성된다.

남성성은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며, 위계적 남성성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구조 속에서 순환된다. 여성학자 벨 훅스는 폭력은 직장 등의 공적인 세계에서 권력적 관계로 인해 굴욕감을 느끼고 심리적 학대를 받는 남성들이 폭력을 억누르고 있다가 ‘통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을 학

6) R.W.코넬 저, 안상욱, 현민 역(2013), 『남성성/들』, 이매진, pp.112-118.

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순환된다고 말한다.⁷ 더욱이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실업이 증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의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감정이 친밀한 관계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에게 분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성성이란, 타고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 수행 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은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남성다움의 전형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한 남성이 미인을 얻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자만은 결국 의사 소통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트폭력이란 (힘의 차이를 무시한 채) 살짝 밀친 장난이거나, 타이름이거나, 터프한 성적 관계이거나 '오빠'가 생각하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정당화된다. 따라서 데이트관계에서 성폭력은 더더욱 성관계를 동의한 여성의 변심과 모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어지는 것이다. 스토킹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내 소유인 여자'가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떠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나의 남성다움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별통보 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과 집착으로 이어진다.⁸ 이처럼 남성성의 수행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가정폭력으로, 때로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에 있으며, 이는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남성성의 수행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벨 훅스 저, 윤은진 역(2010),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 pp.191-192.

8)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범죄 보도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452명, 미수포함 최소 655명, 주변인 피해 포함 최소 797명이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될 가능성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2014), "2013년 분노의 게이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한국여성의전화.

무엇이 피해로 만들어지는가 : 데이트폭력은 동의/합의/거래/보살핌의 경계에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미즈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⁹, 법적 의미의 강간을 경험한 여성 중 27%만이 자신을 강간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이 피해자들의 42%는 가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미즈프로젝트는 이러한 여성들의 태도를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였다고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성폭력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두고 갈등의 시간을 갖는다. 그 기간에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다시 섹스도 해보고, 메시지도 주고 받아 본다. 그러나 상대의 성적 행동이 '호감'이나 '사랑'이 아니라 순간의 '욕정' 때문이었다고 인식되는 순간, 불편하고 짝뚱했던 성적 행위는 성폭력으로 '명명'된다(그러나 이러한 명명 자체도 실로 엄청난 용기다). 그리고 피해자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행위들은(섹스, 함께한 대화 내용, 메시지 등) 훗날 남성경험 중심적인 법적 공간에서 '진짜' 피해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로 전락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 이후 피해자가 왜 계속 가해자를 만났는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성폭력이란 여전히 특정한/흉악범/사이코패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85% 이상은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고 현·전 데이트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26%에 이른다¹⁰. 또한 많은 경우 폭력, 스토킹, 협박과 직장파, 가족, 친구 등 주변의 관계망 등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피해자

9) 로빈 월소 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역(2015),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미디어 일다.

10) 한국성폭력상담소(2015), 「2015년 상담통계」

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내가 애인한테 성폭력이나 당하는 나약하고, 힘없는 여성이었는데’라는 질문을 극복해내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피해자라고 ‘친다면’,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이제 주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발생하는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건강상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질문은 꼬리표를 물며 끝이 없다. 나 하나만 참으면 모든 일은 없던 일이 된다고 여기게 되므로 결국 성폭력 신고는 5~10%를 넘지 못한다. 이제 질문은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왜 떠나지 않았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분리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의/합의/거래/보살핌의 경계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한 시간 전까지 그토록 다정하고 사랑해주었던 남자친구가 약간의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칠 때까지 조르다가 토라져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해야 하거나, 혹은 배려 있는 섹스를 나눴으나, 뒤돌아서면 다소 거친 언행으로 훈계하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누가, 어떻게, 집착과 관심을, 사랑과 폭력을, 친밀함과 강간을 구분할 수 있을까. 피해의 언어에서 사랑, 폭력, 친밀함, 강간, 연민, 보살핌은 통합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는 사건 당시의 그 순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사적 경험이나 관계,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러싼 공간과 주변인들의 관계, 현재의 조건들에 따라 사후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하는 순간은 피해 직후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의미화되는 과정 중 일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데이트 성/폭력 피해의 의미는 단순히 동의를 했는가, 폭력이 있었는가 등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몸의 경험과 정서적 관계 속에서 경계를 오간다.

성적 관계에서 동의의 문제
: 반쯤 얻어진 동의를 동의로 생각한다면,
왜 반쯤 거절된 것은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데이트폭력과 데이트성폭력은 현실 속에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법의 언어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된다. 물리적 폭력이 있는 경우 폭력에 관한 법으로 처리 과정을 거치지만, 성적인 문제가 포함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법적 의미의 성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이 있거나, 항거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조르거나 빼치거나 설득하는 헤어지자고 협박하는 등의 형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만약 법에 호소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항거가 불가능했는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화해야 하고, 주체성은 상실되며, 법의 조각들에 ‘맞춰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다양하고 연속적인 맥락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려운 문제는 폭행, 협박을 중시하는 현재 강간죄의 보호법익¹¹⁾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에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평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믿어지는 어떤 것)이다. 이 권리를 침해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결정은 ‘동의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친밀한 이성애 관계에서 성적인 접촉과 관계는 주로 누가 동의를 묻고, 누가 동의를 허락하거나 거절하는지 생각해 보자. 여성학자 캐서린 맥키논의 말처럼, 여전히 많은 경우에 ‘동의’는 남성이 제안하고 여성이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성적관계에 대한 일종의 통제 형태이다. 즉, 성적 관계에서

11) 보호법익이란 해당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성폭력 관련 법의 경우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주체성을 인정하는 의미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동의와 동의아님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의 호소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동의의 맥락은 상호간 의사소통을 한 후 내리는 선택이라기보다 여성의 근본적인 사회적 무력함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다. 그녀는 반쯤 얻어진 동의를 동의로 생각한다면, 왜 반쯤 거절된 것은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 되묻는다.¹² 남성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별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한 '동의'는 사실상 평등한 관계에서의 선택이라기보다 권력이 전제된 관계에서의 수동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는 동의와 거부의 이분법적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연속적인 맥락이 존재하며, 동의/제안/강요의 형태는 동시에 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은 협상중이거나 위태롭게 유지되거나, 쉽게 무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강제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Bart(1983)는 이성애적 성을 첫째, 동의적 성(남성, 여성 똑같이 원하는 경우), 둘째, 이타적 성(여성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남성에게 미안하게 느끼거나 죄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경우), 셋째, 순응적 성(안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함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나빠서 하는 경우), 넷째, 강간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시한다. Kelly(1987)는 이에 덧붙여 여러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타적 성, 순응적 성은 성관계를 갖도록 압력 받는 것과 비슷하고 강제적 성은 '강간 같았다'라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표현된다고 보고했다. 동의적 성과 강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없고, 압력, 위협, 강제, 힘의 연속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³ 이것은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과 성관계의 결을 구분하기 곤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동의의 문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구성되는 맥락,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구조에 대

12) Mackinnon, Catharine A. (1989), "Rape: on coercion and consent" in *Toward a Feminist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71-183.
 13) Bart Pauline B. and P. O'Brien(1985), "Stopping Rape Successful Survival Strategies", Pergamon Press, Kelly, L.(1987), "It's everywhere :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Hanmer and Maynard 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on: Macmillan, 심영희(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 제5권, pp.135-136에서 재인용.

해서는 읽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저항하지 않았고,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증거삼아 일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기제로 합리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전략이거나 하나의 담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¹⁴ 문제는 동의와 거절을 넘어 '자율성'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었다는 환상을 넘어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자율성이 발휘되거나/발휘될 수 없는가, 우리 사회는 누구의 경험을 우선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되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방법은 있다 : 나의 젠더 경험을 낫설게 보기

개인의 경험은 언제나 불연속적인 상황에서 출몰하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겪어진다. "우리는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구성된 주체들'이다."¹⁵ 그럼에도 기존의 거대 담론은 여성의 경험보다는 남성의 경험을 더 우선시해오면서, '비주류'의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 남성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나의 젠더 경험을 한 발자국 낫설게 볼 수 있는 성찰적 감수성이다. 의사소통 방법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찰적 감수성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거절이라는 것, 술이나 약에 취한 여성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흥분제를 먹고 흥

14)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말대로(2015), 진정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역할, 장애여부, 성적지향, 나이 등의 조건으로 인해 이미 피해자가 불평등한 조건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자율성'의 의미를 재구성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자 권리,"〈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p.33. 한국성폭력상담소(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재인용
 15) Joan, W. Scott(1991), "Experience", *Critical Inquiry*, Vol. 17, No. 4, pp. 779-780.

분한 여자는 당신과의 섹스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 되어야 한다¹⁶ 또한 동의와 거절의 경계에, 또 그 경계 너머에 미쳐 언어화되지 못한 더 많은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찰적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지침서는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젠더화된 폭력,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폭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언어를 부여하고, 설명될 수 없었던 경험을 설명해주는 이론이자 실천이다. 이것은 남성사회 속에 살아남아야만 했던 남성들의 자기분열과 자기 스스로를 혐오해야만 했던 여성의 자기혐오의 틈새를 좁힐 수 있는 시작이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생물학적 여성/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화된 질서 속에서 발현되는 폭력적인 기호들일 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잠재적 가해자로서가 아니라 남성성의 수행을 거부하는 잠재적 연대자/지지자/동지로서 '남성'들을 만나고 싶다. 자신의 경험을 낯설게 함으로써 기존의 단일한 관계를 박차고 나올 때, 뜨거운 연대와 지지가 당신들을 기다릴 것이다. ■

16) 닥터 W(2016), "한국의 강간문화에 대하여 : 섹스아닌 강간입니다", 『#그건_강간입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최종발표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p.14.

4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2015년 ~ 2016년 상반기

- 2015 상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 2015 하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 2016 상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 2015 상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권인숙 _ 초등남학생 엄마의 남아성폭력 관련 불안(두려움)의 젠더적 특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여성학연구 25(1)

김선남 _ 성폭력 보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학회 /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선주 _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 및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김은경, 이나영 _ 성폭력, 누구에 대한 어떤 공포인가 : 언론의 성폭력 재현과 젠더질서의 재생산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미디어, 젠더 & 문화 30(2)

김인선 _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여성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 흑인여성의 섹슈얼리티, 저항,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사학회 / 미국사연구 41

김현경 _ 여성주의 성폭력예방교육의 모색
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 31(2)

노화영, 이예스터 _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설계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 융합예술치료교육 1(1)

류한수진 _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해방운동의 현주소> 삭제 요청에 대한 반론 : 사회주의가 성폭력 문제 앞에 당당하기 위하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정세와노동 109

문선아, 김봉근 _ 성폭력 범죄 보도 태도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 기자와의 질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서혜석, 채인석 _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67

심혜선, 김지현, 전종실 _ 성폭력 피해자들의 귀인양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사회연구 35(2)

안은주 _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좌절과 대처 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 54(1)

윤덕경, 김차연 _ 성폭력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 7(1)

이명신, 양난미, 김점희, 문유정 _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가 연계에 미치는 영향 :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젠더와문화 8(1)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_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이용식 _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66

이유정 _ 여성 폭력과 사법
한국법학원 _ 저스티스 146(3)

이현숙, 정병훈, 이영훈 외 _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교육, 성지식, 성태도, 성 허용성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교육문화연구 21(3)

이현정 _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헌법학회 / 미국헌법연구 26(1)

정현미 _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 7(1)

조상현, 정병수, 김양현 _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민의 인식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사회과학연구 22(2)

주승희 _ 군대 내 성희롱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고 : [군형법] 상 추행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45

차선자 _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언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35(1)

최경숙 _ 폭력피해의 후유증,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 아동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최지영, 오경자 _ 누적 아동기 외상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정서조절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한희정, 전해정 _ 한국사회의 성희롱 개념 연구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 사회과학연구논총 31(1)

■ 2015 하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 강경연, 김민우, 이경훈 _ 지하철역사 내 성폭력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축계획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1(11)
- 고재욱 _ 스포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 /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4)
- 김경운, 권기창 _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임파워먼트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 한국정책연구 15(4)
- 김남희, 손경희 _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 /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 김민정 _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 7(3)
- 김지은, 김혜정, 홍해숙 _ 아동성폭력 피해특성과 자기비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 /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2)
- 노명선 _ [형사법] 성폭력범죄, 컴퓨터압수·수색, 관련성, 기록열람등사, 불복방법
고시계사 / 고시계 60(8)
- 노일석 _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적 왜곡
한국심리학회 / 한국실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문선아, 김봉근, 강진숙 _ 성폭력 범죄 보도 태도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
과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 한국방송학보 29(6)
- 박다원, 이인혜 _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 박민영 _ 학교, 성범죄의 온상 ① :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폭력
인물과사상사 / 인물과사상 210
- 박민영 _ 학교, 성범죄의 온상 ② : 학교의 서열문화와 성폭력
인물과사상사 / 인물과사상 211
- 박민영 _ 학교, 성범죄의 온상 ③ : 학생 간 성폭력
인물과사상사 / 인물과사상 212
- 박정애 _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한국사학회 / 사학연구 120
- 안현준, 최재용 _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 26(3)
- 양미진, 김은영, 김래선, 류다정, 장은희 _ 청소년상담 현장실무자를 위한 성폭력피해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 31(3)
- 양선숙 _ 서사적 자아 개념과 그 여성주의적 함축 : 성폭력 트라우마의 극복과 관련하여
한국여성철학회 / 한국여성철학 24
- 이규미, 조은선 _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후유증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 이미선 _ 성폭력 피해아동조사면담 기법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민조, 박혜경 _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 문화 성향에 따른 분노 표현과 수치심 경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선이 _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一考察 : 中國山西省피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 사학연구 120
- 이영미 _ 전쟁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경험과 해방을 위한 기억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과 사사기 19-21장의 성폭력 피해여성을 사례로
한국신학정보연구원 / Canon&Culture 9(2)
- 이은진 _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 이재희 _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여성연구논집 26
- 임보미 _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신법학 15
- 정주은 _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성적자기결정권 "목소리는 낮게, 그러나 모두에게 들리도록"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정희성 _ 목회자의 교회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 장신논단 47(4)
- 조재규, 정승희 _ 장애아동 성교육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 최은하 _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근란' 해석론의 전환 : 성적 강요죄(독
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 26(3)
- 최인숙, 김정인 _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 한정수, 조성진, 배승민 _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3)
- 황일호 _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69

■ 2016 상반기 성폭력 관련 학술지·연구물

기광도 _ 강제추행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 한국범죄학 10(1)

김지은 _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이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 15(1)

김태명 _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 刑事政策 28(1)

김혜정 _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바라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가천법학 9(1)

류도암 _ 프로그램 논리를 통한 성폭력 피해 지원 프로그램 분석 :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류진아 _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 :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회 / 국어문학 61

박다원, 이인혜 _ 자기애적 과시, 허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 : 상태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21(1)

배상균 _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 27(1)

배수희, 손승영 _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여성학연구 26(1)

유정미, 방명애, 장역방 _ 상황중심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지적장애 중학생의 성폭력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지적장애연구 18(1)

유진 _ 아동학대와 위험한 타자의 범죄적 섹슈얼리티
한국여성연구소 / 페미니즘 연구 16(1)

윤일수 _ 재소자가 경험하는 '부끄러움'의 내용에 대한 분석 : 소시오드라마를 통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통일인문학 65

이명신, 양난미, 안수영, 김보령 _ 성폭력 상담원의 소진 결정 요인 : 업무과중, 공감피로, 피해자중심서비스(Victim-centered service)와 이차피해태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사회정책 50

이원경 _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69

이재석 _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조윤오 _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 12(4)

조현욱 _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鑑法學 33

진범섭 _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집단적 효능감 검증 : 성폭력 예방에의 적용
한국소통학회 /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1)

채현숙 _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사회복지학 68(1)

최은주 _ '위안부'=소녀이야기와 국민적 기억 : 영화 『귀향』에 주목하여
한국일본학회 / 일본학보 107

허민숙 _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 32(2)

* 본 연구물 목록은 2015년부터 201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내 모든 연구물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호부터 학위논문과 기관 연구물 동향이 함께 포함될 계획입니다.

반성폭력

2016 하반기

10

이슈리포트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퍼넌이 이미경

만든이 김보화

디자인 디자인이즈

퍼넌날 2016년 12월 23일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3층

전화 02-338-2829

팩스 02-338-712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이메일 research@sisters.or.kr

블로그 www.stoprape.or.kr

트위터 www.twitter.com/stoprape